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차보은(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조원** 김지연(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한승민(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22. 7. 29. ~ 2022. 11. 30.
연구책임자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차보은(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지연(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한승민(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연구요약 (Summary of the research)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교류사업으로의 재구조화와 방향성 제시를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온라인 교육교류에 참여한 국내·외 참여교사의 경험을 인터뷰한 후 면밀히 분석하여 포스트-코로나-19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더불어 다수의 국내·외 참가교사들에 대해 대면 초점집단면담(FGI)과 비대면 1대1 온라인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보완과 개선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통해 향후 국제 교육교류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이 권고되는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ctual practices of the 'APTE online program'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education exchange projects. The main content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education exchanges, especially with regard to experiences of domestic and foreign participating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online APTE program, and thereby seek directions and tasks for post-COVID-19 online education exchanges. In addition to literature research, a number of domestic and foreign participating teachers were included in the face-to-face focus group interviews(FGIs) and non-face-to-face online in-depth interviews. Through the interviews, frank opinions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online education exchange were collected. Using the analyses based on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several policy proposals were made as recommendations to achieve the desired purpose of future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projects.

제1장. 서론 3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 2. 연구 내용 / 5
- 3. 연구 방법 / 5
 - 가. 문헌분석 / 5
 - 나. 비대면 면담 / 8
 - 다. 대면 초점집단면담(FGI) / 9
 - 라. 연구 참여자 소개 / 9
 - 마. 연구윤리 / 11

제2장. 온라인 교사교류 프로그램의 이론적 검토 13

- 1. 교사교류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 13
 - 가. 국내 선행연구 및 사례 / 13
 - 나. 외국 선행연구 및 사례 / 17
- 2. 교사교류 프로그램의 역사 / 22
 - 가. 학교 간 국제교류 역사 / 22
 - 나. 아태교육원 APTE 프로그램의 소개와 성과 / 25
- 3. 온라인 교육교류의 의미 및 유형 / 29

제3장. 면담자료 분석 결과 32

- 1. 국내 초등학교 교사 / 32
 - 가. 참여의 맥락 / 32
 - 나. 준비과정, 교육활동 및 지원체계 / 34
 - 다. 참여교사와의 관계 / 42
 - 라. 학생들의 반응 / 44
 - 마. 온라인 교류의 장단점 / 47
- 2. 국내 중등학교 교사 / 48
 - 가. 참여의 맥락 / 48

나. 준비과정, 교육활동 및 지원체계 / 52	
다. 참여교사와의 관계 / 62	
라. 학생들의 반응 / 65	
마. 온라인 교류의 장단점 / 68	
3. 초점집단면담 / 70	
가.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 / 70	
나. 온라인 교류의 한계와 보완점 / 76	
4. 외국(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교사 / 81	
가. 참여의 맥락 / 81	
나. 준비과정, 교육활동 및 지원체계 / 81	
다. 참여교사와의 관계 / 83	
라. 학생들의 반응 / 86	
마. 온라인 교류의 장단점 / 89	
제4장.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94
1. 논의 / 94	
2. 정책제언 / 96	
가. 더욱 세심한 사전 준비와 모니터링 / 96	
나. 교류국 교사와의 매칭 문제 개선 / 97	
다. 맞춤형 APTE 안내와 참고자료 제공 / 97	
라. 교류방식의 다각화 고려 / 98	
마. 교사교류에서 학생교류로의 전환 / 98	
바. 학교 내 연구회에서 학교 간 연구회로 확장 필요 / 99	
사. 기참가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력 활용 / 99	
아. 고등학교 교과와 융합되는 APTE / 99	
참고문헌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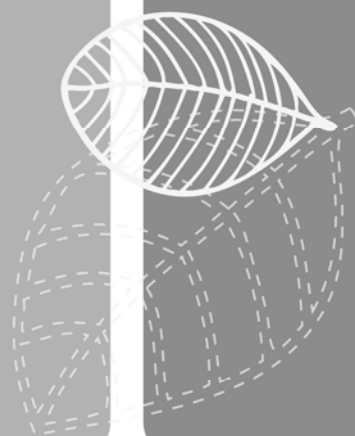
부 록 103

- 부록1. 면담질문지 / 104
 - 가. 개별 면담 질문지 / 104
 - 나. 초점집단면담(FGI) 질문지 / 105

- 부록2. 연구 관련 문건 / 106
 - 가.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국문) / 106
 - 나.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영문) / 107
 - 다. 연구참여자 동의서 / 108
 - 라. 연구참여자 설명문(국문) / 109
 - 마. 연구참여자 설명문(영문) / 113

표차례

〈표 1-1〉 국제교류 관련 선행연구 분석	7
〈표 1-2〉 국내 초등교사 연구참여자 정보	9
〈표 1-3〉 국내 중등교사 연구참여자 정보	10
〈표 1-4〉 해외교사 연구참여자 정보	10
〈표 1-5〉 FGI 연구참여자 정보	11
〈표 2-1〉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 재구성	23
〈표 2-2〉 6가지 온라인 교류 유형	30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 지구촌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체감되는 거리 또한 줄어든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가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자본, 기술, 상품 및 사람이 국경 간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공간적으로 압축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무역, 금융, 에너지, 지식 분야 등에서 심화된 국가간·지역간 상호의존도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영역 또한 초국가적 인권, 평화, 사회정의, 문화다양성 등 보편적인 인류의 화두들을 고민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절실했다. 더구나 인류가 공동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할 전지구적인 문제들, 예컨대 환경, 평화, 난민, 빈부격차, 에너지 문제 등은 단일 국가 단위로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국가 간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탈국경적, 국제적 협력과 공조는 무엇보다도 상호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공생공영(共生共榮)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국제교육교류는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이 국가간·지역간에 소통의 물꼬를 트고 자국 중심적인 폐쇄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련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야말로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한지를 일깨워 줄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제교육교류사업은 각국의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이 수평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유대관계를 경험하면서 의식적인 연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동시에 비교대상인 타국의 교육현장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이를 통한 다양한 지혜가 가능한 집단지성이 구현되는 교육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는 UN이 2015년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목표 4를 유네스코에서 담당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2030(Education 2030)을 통해 천명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증진(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교육목표 4.7) 및 국제협력을 통한 “질 높은 교사의 양성 확대(Increase the

supply of qualified teachers)”(교육목표 4.c)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교육교류는 여러 면에서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방적, 확산적,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21세기는 교육공학적 진전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완결된 지식 패키지를 교과서에 담아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지식을 창출해내고 공유하는 과정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지향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 즉 ‘과정 지식(process knowledge)’(Schank et al., 1999)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최우선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배경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가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의식적으로 관점의 이동을 시도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국제교육교류는 바로 이러한 ‘과정 지식’을 얻는 활동으로써 최적화된 교육실천 행위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교육교류가 양과 질에서 확장될수록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 증대, 다채로운 교육과정과 교수법 개발, 교사의 전문성 향상, 외국어 실력 배양 등 다양한 전문화가 동시에 촉진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제 교육교류는 단순한 문화교류 이상의, 교육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요한 행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여 2012년 이후부터 7개국과 교류해 온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이하, APTE 교사교류사업)은 참여국 파견교사·초청교사·학생들 모두에게 상호이해와 우애 증진 이상으로 각국 교육환경과 실천에 대해 새롭게 조망하고 21세기의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과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미 지난 해인 2021년 후반에 APTE 교사교류사업에 참가한 초청 및 파견 교사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순용 외, 2021). 해당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체험자료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이전의 교사교류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교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새롭게 진행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이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¹⁾ 특히 APTE에 참여한 교사들이 교류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 따라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교사의 경험이 어떻게 학생 교육으로 이어졌는

1) 본 보고서에서 ‘APTE 교사교류사업’과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을 묶어서 표현할 경우 이를 APTE로 통칭한다.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류방식에 따른 사업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개선점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기획, 실천, 영향을 참가 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고 장·단점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면교류와의 병행과 상호보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아태교육원이 추진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한 국내·외 교사들 중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수집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특히 포스트-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교류와 함께 진행할 경우를 상정하여 APTE의 온·오프라인 교류 병행에 대한 효과를 예견하고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 및 향후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약 3개월에 걸쳐 문헌연구, 1대1 비대면 심층면담, 대면 초점집단 면담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질적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통계를 적용한 일반화와 설명보다 총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이해를 목표로 삼는다(신혜숙, 2022). 각각의 자료 수집 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분석

면담에 앞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제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의 경험과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는 면담을 준비하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참고가 되었다.²⁾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로 들면, 국제교육교류가 글로벌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효과

2) 제2장 참조바람.

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한유경 외, 2015; 박주형·김민규, 2018; 김주영 외, 2020), 특히 장기간 관계맺음을 통해 얻는 질적인 체험과 현지문화에 대한 적응은 양국 교사들이 모두 교사로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순용 외, 2021). 한편 온라인 교류와 관련해서는, 2021년에 실시한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성과를 설문 통계 분석한 박주형·문찬주(2021)의 연구에서 국내 및 해외 교원의 글로벌 교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변화도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교류를 통해 국내 학생의 글로벌 역량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업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해외 학생의 경우 글로벌 역량은 다소 개선이 있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즉,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 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주로 교사들의 협력과 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박주형·문찬주, 2021). 이처럼 선행연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면담 질문 항목을 구성하고 자료를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그 밖에 온라인 기반 국제교육교류 관한 선행 연구들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실시간 국제교류 프로젝트와 비실시간 국제교류 프로젝트로 나누어진다. 실시간 국제교류 사례는 코로나 상황인 2020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이전에는 비실시간 국제교류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국제교류의 경험 자체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개선점을 정리한 연구와 기존의 국제교류 사례들을 정리하여 발전적인 국제교류의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는 주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실시한 교류 수업의 과정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이며 온라인 교사 교육교류의 의미와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온라인 국제교류의 의미만 분석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제교류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비교 논의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표 1-1〉 국제교류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학술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Touching through the screen: embodied learning through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s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연구자(년도) : Jessica Walton. (2021) 연구목적: 호주와 한국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기반 상호문화교류 경험에 관한 문화 기술지 연구 	질적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맥락이라는 제도적 차원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에 참가하도록 하는지 연구함. 학생들이 신체를 이용하는 것을 디지털 매개의 상호 작용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언어학습이나 기술 습득에 국한되지 않은 문화 간 학습으로서 온라인 기반 상호문화교류 학습의 의미가 있음
2. 학술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온라인을 활용한 한일 공유대학 모델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타케우치 칸타, 서한석 (2022) 연구목적: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국제교류프로젝트를 실시한 경험과 만족도를 연구 	양적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프로젝트를 실시한 한-일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자국에 있으면서 외국의 학생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여김 향후 온라인 국제교류프로젝트의 방향으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라인 등), 가상공간을 활용한 AR, VR, 메타버스 등의 기술기반 캠퍼스 및 강의실을 통한 새로운 기술융합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3. 학술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설계모형 탐구 연구자(년도) : 박상훈 (2018) 연구목적: 첨단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간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의 개념과 유형을 탐색 	질적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시한 결과 크게 국제교류 협력학습, 비실시간 국제교류 협력학습으로 나눌 수 있었음.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시 고려사항으로 무엇보다 원활한 교류환경 즉 지원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확인 중요하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학생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교류 혹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웹사이트나 SNS 채널 등을 확보하여 교류학습 후에도 양국의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상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 교류학습의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함.
4. 학술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온라인 화상 국제교류 협동수업의 실천 사례에 관한 연구 - 예비 일본어교원의 미래핵심역량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최은혁(2021) 연구목적: 일본어 예비 교원들의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대학과 한일 온라인 화상 국제교류협력 수업을 실시하고 효과성 검토 	양적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일본어 교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업 종료 후 온라인 국제교류협력 수업을 통해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적 효과 및 문제점과 예비 교원으로서의 느낀 점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으로 참가자들의 학습 동기 및 의욕이 고취되었으며 자기 주도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함. 단점으로는 시설 및 장비문제로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 운영 및 진행에 있어서 인프라 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5. 학술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If you don't improve, what's the point? Investigating the impact of a "flipped" online exchange in teacher education • 연구자(년도): Dooly et al.(2020) • 연구목적: 교사교육을 위한 '플립드 러닝'의 교육학적 설계 제시 	질적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과 유럽의 두 파트너 대학에서 예비 교사들이 원격 협업을 통해 이론과 이론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함 2. 참가자들은 온라인 수업 공간을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 활동을 하며 변형적 성찰을 경험하게 됨. 3. 원격 협업 대화 구조는 서로 수업을 원격으로 설계하고 대화에 기반하여 피드백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공동 수업 설계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4. 원격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자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향후 교실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임.
6. 학술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이 초등 영어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년도): 윤호수(2018) • 연구목적: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영어 수업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 양상을 질적으로 탐구 	질적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위한 수업 모형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한국의 초등학교와 말레이시아, 폴란드의 초등학생들과 비실시간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실시함. 2. 온라인 국제교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개방적인 태도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교류국이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됨. 3. 실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발달로 교류국 학생들의 표현을 경청하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개선되었음.

나. 비대면 면담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해석 사례 연구(descriptive interpretive case study)의 방법론에 따라 자료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귀납적 분석법의 도움을 받아 처리되었다. 이는 자료 수집 전에 데이터에 대한 주요 점검항목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범주, 패턴, 테마로 구성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연구참여자들과 1대1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확보했는데, 국내·외 참여자들과 모두 비대면으로 60분~70분 동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담은 학교 급별(초등·중등), 국내·외 교사를 구분하여 선정된 APTE 참가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 대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FGI는 연구의 주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생성하는 집단면담 방식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질문하고 돌아가면서 대답하는 일반적인 집단 면접과는 달리, 연구자는 진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제 관련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 연구에서는 APTE 참가 교사들과의 일대일 면담에 앞서서 학교급별 구분 없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 약 90분간의 FGI를 진행하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진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 항목에 구애받지 않은 채 참가 교사들의 APTE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FGI가 사전 면담(pilot interview)의 성격으로 구상되었지만 FGI를 통해 얻은 결과 자체로도 APTE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발견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참여자는 APTE 참가 경험이 있는 국내외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아래 표에는 국내 초등교사, 국내 중등교사, 해외교사 정보를 집단별로 정리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 처리하였다.

국내 초등교사는 KE3만 유일하게 2018년도에 베트남으로 현지 파견을 갔다 온 후 2021년, 2022년에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였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온라인 교육교류를 통해 APTE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KE1은 2021년 말레이시아, KE2, KE3은 2021년도에는 말레이시아와 2022년도에는 태국과 온라인 교류사업에 참가하였다. KE4는 2022년도에 태국, KE5는 2022년도에 필리핀, KE6는 2022년도에 말레이시아와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였다. 국내 초등교사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국내 초등교사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연구참여자	성별	지역	학교급	경력
1	KE1	여	충청남도	초등학교	5
2	KE2	여	세종	초등학교	7
3	KE3	여	세종	초등학교	12
4	KE4	여	경기도	초등학교	12
5	KE5	남	강원도	초등학교	18
6	KE6	여	충청남도	초등학교	18

연구에 참여한 국내 중등교사는 모두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KH1은 2019년 캄보디아 파견 교사로 참여하였고,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참가 경험은 없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온라인 교육 교류사업에 참가한 교사들이다. KH5와 KH6은 2021년도 태국과의 온라인 교류사업에 참가하였고, KH2, KH3, KH4는 2022년도 캄보디아와의 온라인 교류사업에 참가하였다. 국내 중등교사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국내 중등교사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연구참여자	성별	지역	학교급	과목	경력
1	KH1	남	충청남도	고등학교	영어	32
2	KH2	여	경기도	고등학교	과학	8
3	KH3	남	경기도	고등학교	국어	8
4	KH4	여	경기도	고등학교	영어	18
5	KH5	여	경기도	고등학교	영어	23
6	KH6	남	서울	고등학교	기계	28

해외교사 참가자들은 아태교육원에서 제공한 명단에서 영어로 면담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의 참가교사들을 학교급별(초·중등)로 한 명씩 선정하여 총 8명을 섭외하였다. 이 가운데 2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불응하여 최종적으로 6인과 비대면 온라인 심층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표 1-4> 참조). 모두 온·오프로 APTE 참가 경험이 있었다.

<표 1-4> 해외교사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연구참여자	성별	국가	학교급	과목/기타	경력
1	ME	남	말레이시아	초등	미술, 체육	10년
2	MH	여	말레이시아	중고등	영어	12년
3	TE*	여	태국	초등		
4	TH	여	태국	고등	영어	30년
5	CE*	여	캄보디아	초등		
6	CH	여	캄보디아	고등	영어	5년
7	PE	여	필리핀	초등	교장	17년
8	PH	여	필리핀	고등	역사·사회	18년

*인터뷰 불응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는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장점과 개선점 도출’을 주제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1회씩 진행되었다. 온라인 교육교류사업과 네트워킹에 참여했던 초·중등교사 13명과 함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장·단점, 오프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장·단점, 개인별 사례, 교육적 함의 등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FGI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1-5>와 같다.

<표 1-5> FGI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가명	학교급	구분	가명	학교급
FGI1	FE11	초등	FGI2	FE21	초등
	FE12	초등		FS22	중고등
	FS13	중고등		FE23	초등
	FS14	중고등		FE24	초등
	FS15	중고등		FS25	중고등
	FS16	중고등		FS26	중고등

마. 연구윤리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 규정에 따라 준비되고 수행되었다. 2022년 9월 13일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수정 후 2022년 9월 2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교육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기참가자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아 왔으며, 본 연구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물질적 보상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특성상 보상지급이 불가함을 연구참여자 모집문과 설명문에 기술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일정을 정해 연구자와 1회, 1:1 면담을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한다. 국내 초등교사, 국내 중등교사, 해외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인터뷰를 누가 진행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 설명문에 연구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 모집문에는 모집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다.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³⁾을 받은 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외 교사를 모집하였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으로부터 ‘다문화가

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 교사 중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교사를 추천 받았고, 추천받은 국내외 교사에게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설명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연구 제목과 목적, 연구 절차와 소요시간, 비밀보장의 원칙, 중도 포기 가능성, 연구자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교사 12명, 해외교사 6명 등 총 1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면담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PDF 형태로 받았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일정을 정했으며, 모든 인터뷰는 9~10월에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사전 설명과 연구 설명문을 통해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인터뷰는 녹음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본 연구의 의도의 맞게 참여 동기, 교육교류사업 경험 전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장단점 등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조화되었고, 실제 인터뷰 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비구조화된 방식에 가까웠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추천한 기관 관계자를 의식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이 교육교류사업을 개선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모두가 연구자료가 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전사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은 모든 자료에 이름이 아닌 코드 번호를 사용하여 보호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IRB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3)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No. 7001988-202209-HR-1688-02

제2장. 온라인 교사교류 프로그램의 이론적 검토

1 교사교류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가. 국내 선행연구 및 사례

교사의 다문화역량과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사교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 ‘한중 교사 교류사업’, ‘교원 해외파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이하 APTE)’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자 다문화 가정 대상국과의 교육교류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소통능력을 진작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하며, 기존 ODA 사업 방식과 차별화된 교육 분야 인적자원 교류협력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교육부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교육부·APCEIU, 2021).

박주형과 김민규(2018)는 APTE가 참여교사의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PTE에 참여하고 있는 파견교사와 초청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파견교사에게는 글로벌 역량과 교류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고, 초청교사에게는 한국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통한 교수효능감, 수업역량,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파견교사들의 글로벌 역량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고, 초청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수업역량,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파견교사들의 해외교육제도 및 문화의 이해, 한국교육제도의 국제화 필요성 인식, 유연성, 글로벌 교수능력 및 교육활동능력, 외국어효능감,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 세계시민성, 파견 교류국에 대한 이미지에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났고 초청교사들의 교수효능감, 해외교육제도 및 문화 이해, 유연성, 글로벌 교수능력 및 교육활동능력, 외국어 효능감, 세계시민성,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났다.

박주형과 김민규(2018)의 연구를 통해 APTE 참여가 교사의 다문화감수성, 글로벌 소통능력, 교육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살펴볼 질적 연구들은 APTE 참여가 어떻게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중 필리핀 파견교사를 대상으로 APTE 참여 경험을 분석한 이유정(2019) 연

구에 의하면, APTE가 파견교사의 역량 강화에 미치는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 가기 전 대다수의 교사들은 필리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필리핀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필리핀 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필리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고 수정해 나갔으며, 필리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교사들은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거울삼아 자신과 자신이 속한 한국문화를 성찰하기도 했다. APTE 참여를 통해 결과적으로 파견교사들의 다문화역량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필리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던 교사들이 APTE에 참여하여 대상국가 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식하고 동시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유정(2019)은 교사들의 강화된 다문화역량을 지식, 인식과 태도, 기술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식 측면에서 필리핀에 대한 정보, 다문화 관련 지식과 교육자료가 증가하였다. 사전연구를 통해 필리핀의 언어, 역사, 지리 등에 대해 배웠으며, 필리핀 교사들과 교류하며 다문화 교육 정보를 공유했으며, 교사 자신의 인식변화 그 자체는 수업자료가 되기도 했다. 인식과 태도 측면에서는 수용과 관용의 자세를 배우고, 자신과 자문화를 성찰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실천 측면에서 교실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였고, 자발적으로 다문화 연수와 업무에 참여하였으며, 다문화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다.

김한솔(2018)은 태국에 파견된 교사들의 APTE 참여 경험을 지원 동기, 교류 경험, 교사 변화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해외진출에 대한 희망, 재충전의 기회, 다문화에 대한 관심, 동료 교사의 추천 등 다양한 동기로 APTE에 지원하였다. 태국 학교에서 교사들은 한국과 다른 낯선 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면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준비했다. 교사들은 전공과목과 한국문화를 결합하거나 태국 교육과정에 한국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태국의 학교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국의 학교문화에 대해 성찰하기도 했다.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 주거와 비자 문제 등을 겪으며 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교사들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APTE 참여를 통한 교사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교사들은 APTE 참여를 통해 교사 측면에서는 다문화·글로벌 역량과 수업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다문화 태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국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의 수업경험은 수업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수업 변화로 이어졌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의적으로 대하는 태국 사람들을 통해 자부심을 느꼈고, 현지 태국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하는 법도 배웠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박순용 외(2022)는 APTE에 참여한 파견교사들의 경험과 이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의의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가 필리핀과 태국 등 특정 국가에 파견된 교사들의 경험을 다루었다면, 박

순용 외(2022)의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국 별 1~2인, 초, 중등교사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몽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7개 국가에서의 교사교류 경험을 수집,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파견교사들은 교류국 현지에서 낯선 일상과 학교문화를 경험하면서 본국과의 맥락적 차이를 인식하고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교무실이 부재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교육환경, 여러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베트남 교사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경험하였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학교는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교무실이 없어 교사들이 앉아 쉬던 벤치는 파견교사들이 아이들과 원활하게 교류하고 웃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 참여교사들의 APTE 수행 성공의 관건은 낯설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적응과 문화차이에 대한 수용에 있었다. 특히 시간 개념의 차이로 당황스러워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교사도 있었다. 또한 파트너, 코티처는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들의 APTE 경험을 좌우했다. 이렇게 교사들은 생소한 일상체험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구상하는 등 본국과 대비되는 새로운 교육 경험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상기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APTE의 명시적인 핵심은 파견교사가 교류국가의 학생들과 만나 수행하는 교육활동인데, 이는 교사 스스로 공부하면서 수업을 기획하는, “오로지 다 교사의 몫”이었다. 수업 준비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학생들과 경험한 눈빛 교환, 즉 ‘아이컨택’의 경험은, 한국의 학교에서 잊고 있었던 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기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APTE가 상호 문화 이해와 국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교류를 통한 관계의 형성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파견교사 개인의 차원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로서의 사명에 대한 회복적 의미를 지닌다.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 또한 교류국과의 양방향 교사교류사업이다. APTE가 국내 학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를 대상국으로 하여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와 대상국에 한국 교육과 수업 방식 전수에 초점을 두고 학기 중에 이루어진다면,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은 미국, 영국 등과의 교사들과 교류하여 글로벌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한유경 외(2015) 연구에 의하면,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다섯 가지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글로벌화라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평가된다. 국가별 상이한 방학기간에 공동수업을 실시하여 수업 결손 없이 교사와 학생은 물론 소속 학교 전체의 국제적 역량 증진과 교류 기반 확보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교류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의 강점과 우수성, 한국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하였다. 한유경 외(2015)의 연구를 통해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2021년부터 교육현장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APTE 교사교류 역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아직 온라인 교사교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온라인 국제교육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실시한 교류 수업의 과정, 의미, 효과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기반 국제교육교류는 실시간 수업과 비실시간 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비실시간 수업이 주를 이루었고, 코로나-19 이후 실시간 수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3년 출범한 사업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학습자, 교사, 전문가와 공동의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여 협력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하는” 교육활동이다(이종연 외, 2014; 이종연 외, 2014에서 재인용).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은 타문화 및 우리 문화의 이해, 세계시민 양성, 영어 학습 동기와 의사소통능력 향상, 창의성, ICT 활용 능력, 협동심 등 학습자 역량 향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사회문화,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교류국 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하여 우리 문화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은 영어를 사용하여 진행되어 영어 의사소통과 학습동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과 발음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은 학생들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향상시켰으며,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는 학습자의 영어 실력과 수준차를 고려한 학습활동 방법과 전략이 적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류국 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ICT 활용 능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학교 간 파트너 맺기, 교류국 학교와의 학사 일정과 주제 조율, 학생들 간의 영어 실력 수준 차이, 교수학습 모형의 부재, 인터넷 연결 측면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시되었다(이종연 외, 2014).

국내외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사례들을 분석한 박상훈(2018)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확보를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교류국과 교류학교를 결정하고 연결하는 것을 지원하고,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장비, 교수학습모형에 대해 알고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교류학습을 지속

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실시간 수업 외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최은혁(2021)은 예비 일본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일 온라인 화상 국제교류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와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외국어 온라인 국제교류 화상수업을 통해 학습 동기 및 의욕 고취,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 제공, 문제해결 능력 향상,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일본인 학생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발표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이 자문화 교육에 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국제교육교류는 타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넘어 자기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최은혁(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교육교류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사들의 대면 교류 경험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의 온라인 교류 경험에 대한 연구로 대별된다. 2021년부터 온라인 방식의 교사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교육교류에 대한 연구 역시 미국과 호주, 일본과의 교육교류경험을 다루고 있어 교류국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APTE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질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외국 선행연구 및 사례

1) 일본

일본에서 교사교류는 지역 그리고 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 문부과학성이 주최하는 교사교류 프로그램은 대학교원의 외국 파견, 외국인 교원의 대학 초청, 국공립대학 교원의 교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부성의 재외연구원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약 50명의 외국어 담당 교사를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3개월에서 1년간 파견하는 형식의 교사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文部省 홈페이지, 2022.10.10 인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위하여 국제 협동 프로그램'으로 해외 교육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도모와 다양한 교육의제에 대한 교육 실천을 목적으로 교사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Asia-Pacific Culture Center for UNESCO 이하 ACCU)도 교사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주체 중 하나이다. 1971년 일본 정부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으로 설립된 ACCU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상호문화교류를 촉진하는 핵심센터로 역할하며, 2001년부터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을 국경을 넘어 연결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류 형태는

자매 결연, 학교 간 교류, 수업 교류, 공동 수업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교육 실천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ACCU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일교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01년에는 한국인 교사 초청사업, 2003년에는 일본인 교사 파견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전국 교사 단체는 일부 학교 및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및 교사와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두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국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인도 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인도의 교사들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형식의 교류이다. 인도 연방정부교육부, 인도 환경교육센터, 재인도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약 1주일간 인도 교사들이 일본에 체재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 및 정책 관련 강연, 학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 교사와 인도 교사가 하루 동안 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교류를 이해하고, 교육에 대해 그룹 토론을 하는 방식의 교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교사가 인도 현지 학교로 파견되어 직접 수업하는 방식의 교류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인도에 파견을 갔었던 A교사는 인도에서 ‘방재교육’을 주제로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하기도 한다. 방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온라인으로 학생, 교사와 함께 방재관련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재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기도 한다. ‘방재’라는 주제는 지역에 따라서 재난의 종류나 양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글로벌 이슈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교사교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교육자 모임인 일본 역사교육자협회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과거사, 역사 인식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교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의 역사 교사 혹은 역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양국을 오가며 특정한 주제로 수업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고, 교류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하는 방식으로 수업 교류를 실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2021년 코로나 상황에는 히로시마 원폭을 주제로 실시간 화상 수업의 형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을 참관한 양국의 교사들이 사후 협의회를 온라인을 진행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류가 진행되었다.

2) 북미

미국의 대표적인 교사교류 프로그램은 Fulbright Teacher Exchanges이다.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사가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미국 밖 해외의 교사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교사 교환 및 유학 경험을 제공한다. 풀브라이트는 교사교류 프로그램은 교육자들이 해외 교실과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관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교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교육 연구 프로그램인 Fulbright Distinguished Awards가 있다. 이는 미국 교사들이 해외에서 3~6개월 전문 학습 경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호스트 대학에서 과정을 수강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동료들과 협력하는 방법으로 전문연구를 수행한다. 파견국으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핀란드, 그리스, 인도, 멕시코, 대만, 베트남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Fulbright Teachers for Global Classrooms Program은 미국의 교육자들이 해외 경험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학교에 국제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K-12 교육자를 위한 1년 동안의 전문 학습 기회는 온라인 과정과 대면 교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브라질, 프랑스, 독일, 가나, 인도네시아, 한국 등의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르웨이의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교류 경험을 회고하기도 한다(Fulbright Teacher Exchanges 홈페이지, 2022.10.10 인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나의 전문 지식을 넓혀준 아주 멋진 경험이었다. 내 생각에 교사는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공공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바른 태도로 이끌고, 오래된 편견으로부터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 참가한 경험은 타국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이해를 위하여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해외에서의 교육 경험을 통해 교류국과 해당 지역에 대한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학생들이 세계화되고 상호 연결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제도가 없고, 교육은 각주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교사교류의 양상도 주에 따라 상이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교사들을 위하여 'Teach Abroad & Learn Abroad' 프로그램 즉 해외에서의 교육 및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친 짧은 방문에서 여러 학기 또는 몇 년에 걸친 장기간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우선 'International Trip'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지역 사회가 교육자가 보통 학생을 위하여 조직하는 1~2주간의 교육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캐나다의 전쟁', '르네상스 화가의 예술' 등 특정 주제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국가를 여행한다.

다음으로 'Short Term Study Tour' 프로그램이다. 이는 교육자들이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여행이다. 이런 학습 여행은 학기 중에 실시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방학이나 휴업일 중에 진행되며 기간은 1~2주 정도이다. 이 학습 프로그램은 특정한 단체에 의하여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Goethe Institute Transatlantic Outreach Program(독일 괴테 연구소)'이나 'Kezai Koho Centre Fellowships to Japan(일본 경제홍보재단)'에서 진행된다. 이는 재단에서 전적으로 후원하는 형식의 교사교류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International Teaching Exchange'로 단기 혹은 1년 이상 해외 교육 기관과 상호 방문 혹은 체류하는 방식은 교육교류 프로그램이다. 교사는 참여 국가 또는 관할지역의 교육자와 파트너가 되어서 교육을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의 교육교류사업으로 교사의 역할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교환은 숙소나 자동차를 교환하기도 하는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교환의 방식은 매우 상이하다. 상호 교환적인 교육교류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통합하고 다른 문화에 몰입하며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여행하는 등 매우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캐나다 온타리오 교육부, www.oasdi.ca).

3) 유럽

EC(European Community)는 1987년부터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Erasmus+(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학생, 학교,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대학 교수들도 에라스무스를 통해 해외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육자들을 위한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는 해외 고등 교육 기관(HEI)에서의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자들은 에라스무스 그램 참여 기관이나 파트너 국가에서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달간 이루어지며 해외 체류 중 최소 주당 8시간의 실제 교육 시간을 담당해야 한다.

Marinela et al.(2013)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루마니아 학생들과 교수들은 네덜란드 대학과 응용 과학 분야의 교류 프로젝트 학습을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과 대학생들은 국제적 접근으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았고, 다국적 관점에서 사례와 교육 방법을 교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다국적 그룹 내에서의 교육 경험은 단일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 학습 혹은 교육 조건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지

평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Yücel(2013)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Trakya 대학 교육학부에서 독일어 교육학을 공부한 예비 교사들의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 비교, 비판적 문제의식에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의 성과를 보였고, 일상적 경험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유럽 연합과 미국 공동으로 개발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교사교류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공산주의였던 헝가리는 이전까지 없었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플로리다-조지아-헝가리 간 파트너십을 맺고 Civitas(An International Civic Education Exchange Program) - Hungary, 헝가리 - 국제 시민 교육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파트너십을 맺은 지역의 교사들은 지역 교육 센터 및 대학 등을 기반으로 예비 교사를 위한 일련의 시민교육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미국인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나누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킨다. 미국 참가자들 역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과 길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Ridley et al., 1997).

4) 기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그리고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필리핀 사범대학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ASEAN Teacher Education Network 아세안 교원 네트워크협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의 국제 협력 및 학술 교류를 위하여 교사 교육 포럼을 만들어 교사들의 이동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구안되었다. 특히, 필리핀을 중심으로 개발된 TEACH(Teacher Exchange for ASEAN Teachers)프로젝트는 아세안 교사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교사들이 필리핀의 문화를 배우고 영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의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gustin과 Montebon (2018)은 이 프로젝트에서 제공된 다양한 활동을 참가자들의 영어 능력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고, 자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호주에서는 교사들이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교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

요한 미래 예비 교사 교육으로 여긴다. 이를 위해 호주의 몇몇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예비 교사들에게 해외 교육 실습 등 해외에서의 전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hinnappan et al.(2013)은 피지로 해외 교육실습을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의 맥락을 살피는 연구를 하였다. 호주 학생들은 그들이 배웠던 교수학습지식을 바탕으로 피지의 학교에서 교육을 시도한다. 그들이 배웠던 교육 방법이나 지식이 유용한 측면도 있었지만, 피지에서 호주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호주와 피지는 교육 환경, 문화, 학습 도구, 교실 관리 전략 등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비 교사들은 피지의 맥락에서 어떤 자원이나 교수 학습 도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직접 교육하는 경험을 통해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문화 간 이해 수업 전략들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2 교사교류 프로그램의 역사

가. 학교 간 국제교류 약사(略史)

1990년대 중반 국제화와 세계화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책의 중심목표가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정책 추진에 힘입어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국제교류는 교사의 해외파견과 교사교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사의 해외파견체도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재외한국 학교 파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 재외동포의 모국 이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한국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22). 교사의 재외한국학교 파견제도는 2006년 폐지되었는데, 교사 총원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5년 부활하였다. 파견 기간은 총 3년으로 2015년 5명 선발을 시작으로 2016년 23명 선발, 2019년 34명 선발, 2020년 32명 선발, 2022년 16명 선발 등 꾸준히 선발하고 있어 관심 있는 교사들은 장기간 준비하여 신청하고 있다.

교사교류 프로그램으로는 2001년 시작된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사업’이 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유네스코 교육 이념 실행 확산, 한일 교사 간 대화를 통한 양국 교육 현안 이해, 한일 교사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양국의 상호이해 및 지속적인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교류 프로그램이다. 한국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원 아래 추진되어 온 장기 사업으로 2001년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에 한국 교사 50명을 초청하였고, 2011년부터 유

엔대학 신탁기금으로 주최하게 되어 초청 인원을 늘려 2019년까지 한국 교직원 총 2,191명이 방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국에서는 2005년을 기점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일본 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으로 일본 교사 20명을 초청하였고, 2019년까지 일본 교직원 총 678명이 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일교사대화사업의 프로그램은 크게 강연,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지역문화 탐방, 가정 방문, 그룹보고회, 한일교사교육포럼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김이경, 2019).

교사의 해외파견과 교사교류가 활성화된 시기는 2011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해외 진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10개국, 만 명의 교원에 대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 2011).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교육환경 적응을 위해 우수한 국내 현직·예비교원들에게 해외 교육현장 경험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교육사례와 경험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 및 공유하게 하고, 현직·예비교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교원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 재구성(교육부, 2011)

구분	세부내용
국내 교원 해외진출지원사업 확대 및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기간 확대: 3~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6+6개월 형태로 확대 • 파견국가 및 기관 확대: 캐나다, 영국, 미국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진출 교류국을 10개국 20개 기관으로 확대 • 파견국가 확대: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 중동지역 등으로 다변화 • 파견교사의 담당과목: 수학·과학 중심에서 한국어·전문계 과목 등으로 확대 • 파견인원 확대 • 교·사대 졸업자의 해외진출지원사업 신규 추진
교사의 해외진출 기관 및 형태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제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원연수 및 진출 확대 • 국제학교, 재외한국학교 등을 통한 교원진출 다변화 • 마이스터·특성화고 교원의 글로벌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테마연수 추진
해외교사와의 상호교류 증진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학교와의 교환수업을 위한 '교사교환 및 공동수업' 추진 • 국가별 상이한 방학기간을 활용한 상호교류 연수 프로그램 시도
교육 ODA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ODA와 연계한 교사 해외진출 추진
교육배려지역 교사 글로벌연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 교사에게 글로벌교육연수와 국제소양교육 실시

'교원 해외진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교사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교류 사업들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선진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수학·과학 교사 교사교류 사업), 한중 교사 교류사업,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사업(교

원 해외 파견 사업) 등이 있다.

첫째, ‘선진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은 2001년 교육부의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및 공동 수업 시범운영 기본계획’과 2011년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및 공동수업 선발 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출범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국내 교사와 외국 교사 간 교류 및 공동수업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류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외국의 방학 기간 차이를 활용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 교사는 상반기(1~2월)에 교류국에 2~4주 기간 동안 파견되고, 외국 교사는 하반기(6~7월)에 한국 파견교사 근무 학교에 초청되는 방식이다. 2011년 한국 교사 35명이 미국과 영국 학교에 파견되어 현지 교사와 교류하고 공동수업을 실시했다. 이후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파견국가가 확대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사업지원 대상을 중등교사에서 초등교사까지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 독일 간 직업교육 공동의 향서가 체결되어 2015년부터 직업 분야를 중심으로 독일과의 교사교류가 추가되었다. 교사교류의 주요 내용은 수업활동이다. 한국 파견교사 외국 초청교사 모두 교류국을 방문하는 기간동안 협력교사와 상호 수업참관, 교수법 및 교육 콘텐츠를 공유한 수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시한다. 한국 파견교사의 활동 내용은 교류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수업 참관,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타 학교 방문활동을 수행한다. 외국 초청교사는 정규 수업 중 공동수업 진행 및 보조교사로 활동하거나 방과 후 수업, 기타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한유경 외, 2015).

둘째, 2011~2012년에 시행된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우수한 수학과 과학교사를 선발하여 해외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해, 해외 선진교육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수준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에는 영국에 14명, 미국에 20명, 캐나다에 15명이 파견되었고 2012년에는 영국에 10명, 미국 13명이 파견되었다(교육부, 2011, 2012).

셋째, ‘한중 교사 교류사업’은 한중 교육장관 회의에서 체결한 한중 교사교류 협력 합의서(2011.11.24.)에 의거하여 한국 교사를 중국 대학교에 파견하여 교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는 43명이 파견되었는데, 양국의 언어 교육교류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는 만큼 참여교사가 한국어와 중국어 교사로 한정된다.

넷째,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은 역량 있는 교원을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의 교육원조와 해외교육활동 기회를 통한 교원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파견 기간은 1년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혹은 현지어에 능통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교원은 비ODA 유형 국가에서 근무하게 된다(국립국제교육원, 2016).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5배 확대

된 300명을 선발했는데, 1년 동안 근무하는 해외 파견 교원은 140명을, 방학 동안 봉사활동 하는 대학생 160명을 선발하였다(에듀진, 2016.03.24.).⁴⁾

다섯째, 프랑스 한국교육원 파견제도이다. 2014년 시행된 프랑스 한국교육원 파견제도는 파견기간이 3년으로, 교사들은 프랑스 현지 중학교에 파견되어 국제 섹션 교과수업 및 방과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 섹션 교육과정을 검토한다(교육부, 2017).

나. 아태교육원 APTE 프로그램 소개와 성과

1) 아태교육원 APTE 프로그램

APTE 사업은 교육부에서 시행한 다양한 교사교류 프로그램 중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sia-Pacific Teacher Exchange)을 실행하고 있다. 2012년 몽골과 필리핀에 한국 교사를 파견하고 두 나라의 교사를 한국에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교류 국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직전 2019년에는 7개국(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과 교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교류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교류 방식으로 전환하여 아태지역 교사들과 국내 교사들 간 비대면 교육교류 방식으로 교류를 지속하였다.

2) APTE 프로그램의 성과

APTE 관련 선행연구는 해당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왔다.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매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성과분석 및 사업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정 시기의 교육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2020년에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의 성과를 다문화 수용성 중심으로 종합 분석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문항으로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을 조사·측정하였다.

기존의 APTE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특징과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연구 방법의 측면에 보자면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사전 사후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한유경 외(2015)는 APTE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원회가 채택한 개발원조 평가 원칙의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 5개 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분

4) 출처: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http://www.KH5KH4ujin.co.kr>)
2016년 교원 해외 파견사업 참가자 300명 모집
<http://www.KH5KH4ujin.co.kr/nKH5ws/articlKH5ViKH5w.html?iKH4xno=12189>

석기준을 만들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PTE 사업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 증가에 따른 한국의 교육 정책 방향과 부합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현장의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국 문화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박주형 외(2015)와 한유경(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설문 문항을 기반으로 해외 초청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수용성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8개의 영역(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 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류사업으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상아 외(2017)는 APTE에 참여하여 다문화가정 대상국의 외국인 교사들이 배치된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급, 학생 성별, 외국 체류 기간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외국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교사의 국적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었다. 박주형·김민규(2018)는 APTE 사업의 복잡성과 상호교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분석기준에서 글로벌 역량을 살피기 위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파견 교사들은 해외 교육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 글로벌 교수 능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났으며, 초청교사의 경우에도 교수 효능감과 수업 역량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최근 들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 APTE 사업성과와 의의를 분석한 연구도 주목할만 하다. 김주영 외(2020)는 2012~2019년 APTE 사업에 참가한 국내 파견교사들의 후속 활동을 전수 조사 후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참가 경험을 세계시민 의식 함양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박순용 외(2021)는 참가 교사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APTE 참여 경험의 맥락을 학교 교육, 문화, 관계 등의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경험을 포착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교류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세계시민의식의 관점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김주영 외(2020) 및 박순용 외(2021)의 연구는 APTE의 지향점이 ODA 사업이나 다문화교육과 구별되는 성격 및 취지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세계시민의식의 관점으로 참가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김주영 외(2020)는 파견 교사들의 파견 당시 파견지에서의 경험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교사들의 후속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파견교사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순용 외(2021)는 APTE에 참여한 교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류국에서의 체험과

현지 문화를 분석한 결과 APTE 사업이 GCED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향을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번째는 온라인 교류의 내용 반영이다. APTE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 형식의 교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교류 형태로 전환하여 교류를 지속하였다. 박현정(2021)은 기존의 다문화 수용성 및 글로벌 역량 측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온라인 교류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류 상황에서 예비 조사를 시행하고 문항 분석 및 최종 문항 선정을 진행하여, 온라인 교류 방식으로 진행되는 APTE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박주형·문찬주(2021)는 기존 글로벌 역량 설문지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측정을 위한 문항을 추가하여 온라인 교류 후 교사 및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정도를 확인하였다.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관한 관심, 적절한 디지털 기술 선택 및 사용능력,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이해도 등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교류로 국내 학생의 글로벌 역량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업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해외 학생의 경우 글로벌 역량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 사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주로 교사들의 협력과 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APTE 관련 연구는 전체적으로 설문 문항을 통한 사전 사후 분석의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분석의 관점으로 세계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류 방식으로 온라인 교류의 방법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교류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여 온라인 교육교류의 실천 모습이나 경험의 양상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 APTE 사업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교류를 실천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3) APTE 프로그램의 의의 및 효과성

선행연구들을 통해 APTE 사업의 성과는 교육을 경험한 주체들에게서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포착되었다. 첫째, 정의적 측면에서 타자에 관한 관심 및 감수성이 발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용어로 정의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의미로 다문화 수용성이란 타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제 교사교류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내집단에의 일방적 동화기대,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나 회피,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개선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국내 파견 교사들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해외 초청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유경, 2020). 김주영 외(2020)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파견 활동을 통해 해당국의 사람들과 생활하고 교류하면서 국가를 넘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경험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하고, 문화에 대한 편견을 송두리째 없애준 경험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APTE 사업이 국내외의 파견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이 타문화에 관한 관심,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증진 등,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기존의 편견을 제고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측면으로, 타문화 및 타국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다. 사업을 경험한 교사들과 경험하지 않은 교사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지역·국제 간 문화 간 이슈에 대한 지식, 타인의 관점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박주형·문찬주, 2020). 또한, 박순용 외(2021)의 연구에서 파견교사들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슬람 종교와 문화가 주를 이루는 교류 국가에서의 생활 체험은 그 자체가 다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교류국의 문화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온라인 교류 후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사업에 참여한 후 지구촌 이슈에 관한 관심, 지구촌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등이 사전 조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박주형·문찬주, 2021).

셋째, 행동적 영역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은 타자와의 상호교류 행동 의지와 세계시민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개선되었다(한유경, 2021). 파견 교사들은 파견 기간 인연을 맺었던 파견국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파견 대상국에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동아리 및 교사 연구회 등을 운영하는 등 후속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김주영 외, 2020). 교류의 경험이 단지 교류를 했던 과거의 경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의 경험을 현재의 삶과 연결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수업 스킬 즉 교수 지식(pedagogical knowledge)의 발달이다. APTE 사업 참가한 교사들은 학문의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지는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발달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주형·문찬주(2021)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글로벌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거나, 학습 자료를 개발 및 활용하기, 해외 교육제도의 특성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순용 외(2021)의 연구에서는 파견 교사들 중에 현재 시도 차원의 선도교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근무 중인 지역과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다루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교무부장으로 특정 교과나 시수의 차원을 떠나 교육과정 일반에 당시의 경험

을 접목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도하기도 한다.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와의 교육 교류 경험은 단지 타국이나 타문화를 이해하는 인지적 영역을 넘어 타자에 대한 편견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경험이기도 하고,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내 파견교사들은 현지의 교육시설이나 기자재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현지인들의 심리나 태도를 보며 교육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으면서 교사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박순용 외, 2021). Biesta(2013: 52)는 교육이란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고 표현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의미있는 교육으로 초청하고 '선물'을 주고자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 혼자서 결코 던질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며, 학습자가 알지 못했고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자신의 행동과 존재 방식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곽덕주, 2021: 127-128). APTE 사업은 교사와 학생에게 혼자서 던질 수 없었던 질문을 던지며 더 넓은 세상으로 초청하는 선물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3 온라인 교육교류의 의미 및 유형

온라인 교육교류란 교육자 또는 전문가의 지도로 다른 문화적 맥락 또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대와 단기간 혹은 장기간 온라인으로 상호 작용 및 협업에 학습자를 참여 및 포함하는 교육학적 접근 방식이다(O'Dowd, 2020). 온라인 기반 교육교류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교육교류 실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윤호수(2018)는 온라인 국제교류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한국의 초등학교와 말레이시아, 폴란드의 초등학교들과 비실시간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을 실시하였다. 실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발달로 교류국 학생들의 표현을 경청하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온라인 교육교류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다. 박상훈(2018)은 국내·외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실시간 국제교류 협력학습과 비실시간 국제교류 협력학습으로 나누어진다고 분석한다. 효과적인 온라인 협력학습을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환경 즉 지원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확인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교류 혹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와 APCEIU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방식의 교육교류는 교류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 그리고 비실시간 교류로 나눌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원거리에 있는 타자와 컴퓨터를 매개로 상호 작용 및 협업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교류의 상황 즉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별화된다. 그리고 교류에 참가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교수-교사, 교사-학생, 학생-학생으로 나누어진다.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6가지 온라인 교류 유형

	온라인 교류 유형	특징
1	비동시적 온라인 교사-교사교류	교사들이 비동시적으로 온라인에 접속
2	비동시적 온라인 교사-학생교류	교사들이 온라인에 영상을 탑재 하고, 교류국 학생들이 영상을 바탕으로 수업
3	비동시적 온라인 학생-학생교류	패들렛, SNS 등 동일한 플랫폼에 양국의 학생들이 감상이나 의견을 올리는 방식
4	동시적 온라인 교사-교사교류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한 교사 간 수업 협의회
5	동시적 온라인 교사-학생교류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교류국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실시
6	동시적 온라인 학생-학생교류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동시에 양국의 학생들이 접속하여 수업을 실시

우선 비동시적 온라인 교사-교사교류이다. 이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을 하여 사업 참가자들의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대상 국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업 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APCEIU NEXT 시스템 탑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비동시적 온라인 교사-학생교류이다. 이는 교사가 교류하는 국가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 및 학습 자료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본국 교사와 교류국 교사가 올려준 영상을 함께 보고 수업을 하게 된다.

셋째, 비동시적 온라인 학생-학생교류이다. 이는 학생들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교류국 학생들이 비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식의 교류이다.

넷째, 동시적 온라인 교사 간 교류이다. 이는 수업 준비나 수업 후 성찰, 성과 보고 등의 목적으로 교사 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화상 교류이다. 온라인 SSAEM 컨퍼런스는 사업 참가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육활동 결과물 공유, 패널토론, 후속활동 발표 등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동시적 온라인 교사 간 교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동시적 온라인 교사-학생 교류이다. 이는 교류국의 교사와 교류국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에

접속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교류 방식이다.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교류국의 경우 교사가 교류국의 수업 시간에 맞추어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동시적 온라인 학생 간 교류이다. 이는 실시간으로 양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여 수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교류는 기존의 APTE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제3장. 면담자료 분석 결과

1 국내 초등학교 교사

가. 참여의 맥락

1) 자발적 참여 유형

교사교류 사업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의 참여 맥락은 개인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하지만 '자발성'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자발적·주체적 참여 유형이다. 이는 본인이 APTE 사업 공문을 보고 자발적 의지로 교육교류사업에 신청해서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한 교사들이다. 코로나 이전에 APTE 사업의 대면 교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류를 신청한 교사도 있었고, APTE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이나 경로를 통해 국제교류, 교사교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교사도 있었다.

KE5: 2009년에 우연히 이제 지역 축제 관계자랑 잘 연결이 돼서 인도에 가서 학생들과 교류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에 apec 국제 교육협력원 알콧 교사 1기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apec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뮤지컬을 매개로 처음에는 어디 갔더라 태국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쪽 에이팩이랑 같이 이렇게 교류했었고요. 그러다가 유네스코 제가 J 초등학교 갔을 때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이제 뮤지컬을 통한 교류를 제안을 하니깐 프랑스랑 연결이 돼가지고 프랑스와 이제 2015년부터 2019년 코로나 전까지 계속 뮤지컬 교류를 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 수업이라든지 이루어졌었고요. 또 프랑스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부에서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을 받고 2017년에 프랑스랑 교류했었고요. 또 그 당시 2015년 2016년이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을 해서 저희랑 프랑스 교류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인증을 이렇게 받았었고요

APTE 교육교류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교육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교사이다. 교사는 알콧, APEC 네트워크,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외교부 등 다양한 주체들을 매개로 교육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이의 연장선으로 APTE 사업도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교육교류사업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배경 때문에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교사도 있었다.

KE4: 올해 저희 학교가 초등 과정을 개교를 해서 이러한 사업과 저희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철학 같은 것들이 비슷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연구회를 조직해서 이번 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초반에 이제 개교를 할 때는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국적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 이렇게 초반에는 중국하고 러시아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주변에 저희 학교가 있는 그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 친구들이 많아서 그 학생의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네 다 열려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도 중국이나 베트남 러시아 친구들이 다수인 학교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좀 어떤 영어권 학생이 있는 국제학교가 아니라 이런 이제 조금 아시아라든지 네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한국 국적과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학교이다. 단지 국제교류 사업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였다는 것이 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같은 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모국과 관련하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KE4: 이런 교류사업이라는 게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이라는 이게 붙었다는 이유는 분명히 그 학생들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으면 그냥 국제교류라고 했겠죠.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녀 모국과 관련된 것들이 앞에 붙어 있다는 거는 어쨌든 교사들도 그 학생에 대한 모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교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비자발적 참여 유형

두 번째는 비자발적·주변적 참여 유형이다. 이 유형은 주변의 다른 교사들 예를 들어 자발적·주체적인 교사들과 같이 이 사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교사들의 권유, 제안으로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이다.

KE1: 이제 올해에 영어 교과를 담당했었고 작년에 선생님들 동아리로 교사 영어 동아리가 있었어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외국의 이런 세계 시민교육이나 국제교류라기보다

는 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이제 앞에 에서 온 공문을 보시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같이 영어 동아리 하시던 분들 이랑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남자 선생님 한 분 여자 선생님 세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은 담임교사 두 분은 영어과 전담교사 이렇게 해서 넷이서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KE2: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께서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으셔서 옆에서 좀 지켜봐 왔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셔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작년에 교류사업을 했던 게 처음 교류를 했던 거였어요.

두 교사 모두 다른 교사가 먼저 공문을 보고 참여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수용하면서 참여하게 된 경우이다. 물론, 참여 자체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지만 처음 시작은 타자에 의한 권유라는 점에서 비자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참여 유형이 가능해진 것은 사업 진행 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APTE사업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 교류국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교류 방식으로 방향이 전환하면서 학교 단위로 4~5명씩 연구회를 결성하여 연구회별로 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개별 교사가 교류 진행의 주체가 아니라 연구회라는 집단이 교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교육교류사업에 신청하는 단계부터 연구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에 공문을 보고 사업 참여 의지를 명확하게 가진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동의를 하면서 연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육교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본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참여하게 된 교사도 있지만 조금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나. 준비과정, 교육활동 및 지원체계

1) 수업 준비과정

온라인이라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수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온라인 화상 플랫폼, SNS, 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수업 전에 수업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후에 수업을 반성하거나 사후 활동을 하는 등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KE6: 색동 노리개를 이렇게 만든 활동이 있었는데 좀 차시 수업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 아가지고 미리 사전 작업도 드리고 사후 작업도 드려서 한 차시 수업 40분을 하지만 사전과 사

후에 서로 교류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게 한 선생님도 차시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최대한 학생들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것이 또 교사로서의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해서 온라인 교류였지만 그런 수업 전후에 서로 설계를 같이 하고 제가 원하는 수업 목표를 나누고 하면서 많이 좀 교류를 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교류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만 하면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의 교사들의 만남의 장이 쉽게 만들어졌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KE1: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날 시간을 정할 때 카톡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톡방을 개설하고 저희가 교류국이 말레이시아였는데 말레이시아 선생님들 초대하고 한국에서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초대하고 하니까 8명이었거든요. 8명이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나서 첫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날짜를 조율해서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 저녁 8시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 불과 하루 사이에 그 먼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선생님들과 8시에 화면에서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시공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비용이 또 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 들지 않고 편하게 언제든지 쉽게 바로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그때는 이제 줌이었는데 줌이 아니어도 카톡이나 이런 걸로 궁금한 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바로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했거든요.

반면에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 메일이나 SNS와 같은 소통 방식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답이 오지 않거나, 메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수업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날짜를 착각해서 수업을 아예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KE3: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sns 메신저 앱 같은 것들로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수업 선생님들은 그날이 저희 수업 날짜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준비가 안 된 경우들도 한 번 있었어요.

또한, 교류국의 학교, 교실, 수업 환경 등 현지 사정을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다. 상대 학교에 재해 상황, 기술적인 문제, 교실 혹은 학교 문화의 차이, 학생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교류국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KE3: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교류를 하다 보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학교 상황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수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수업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소통을 하는 데 조금 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교류를 했을 때는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이가 잘 이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2) 교육활동

(1) 다양한 온라인 수업 방식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교류국, 학교 여건, 교사의 경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많은 초등교사들이 사용했던 방식은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대면 수업이다. 교사들만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교류국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업을 듣고 참여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교류국이 한국과 시차가 낮기에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온라인 접속이 직접 가능한 교사가 교류국 학생들의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추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주는 방식이다.

KE3: 저희가 이제 현지 학생들한테 수업은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패들렛의 피드백을 하는 형태였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줌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결과물들을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주면서 조금 확인하고 했던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온라인 교류활동은 학급 단위로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하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류국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학습을 시작하는 3학년부터 교육교류를 시도한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방식은 누구나 접속해서 '보는' 방식의 교류가 가능하다. 즉, 외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교류국의 교실의 경관, 학생들의 모습,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KE4: 1학년들도 줌에 같이 접속을 하라고 링크를 다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설명들을 1학년 아이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1학년 학생들도 태국 친구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같이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카메라를 줄 수 없었고 저희가 1인 1태블릿이 있어서 고학년들은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대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급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2) 인류 공통의 문제의식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많은 학교가 '기후 변화', '환경'을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 측 학교뿐만 아니라 교류국 학교에서도 유사하였다. 서로 주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채택하는 예도 있었지만, 사전에 공통 주제를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수업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KE2: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저희는 작년에는 조금 더 교류랑 한국 문화 전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수업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할 때 문화도 문화인데 조금 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올해는 환경 쪽이 좀 많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좀 수업을 많이 주제로 잡고 짚었는데 그리고 프로젝트도 그쪽으로 같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짚는 것도 아닌데 이제 교류하시는 국가 선생님들께서도 그 약간 예코 프렌들리한 주제로 해서 해주셔서 뭔가 올해가 확실히 코로나-19 이후에 좀 다들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신 건가 약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건가 약간 뭔가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었겠지만 그게 딱 해서 뭔가 짚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다 이걸 하면 정말 관심도 많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조금 신기했었어요.

KH1: 업사이클링이랑 이 캄보디아에서는 리사이클링 들고 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느낀 거를 발표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나면 지구 온난화라든지 또 플라스틱 문제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캄보디아도 고민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사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좀 생각하는구나를 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환경 문제 하니까 자신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맥콘강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환경 문

제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보편적인 거 그런 거를 아이들이 좀 많이 느낀...

(3) 들리지 않았던 수업

온라인 교류라는 특성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었다. 교류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수업자료로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지 않아서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KE1: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다문화 대상 국가가 it 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발전된 그런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랑 할 때는 섬학교였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건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는 있는데 만일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쌍방향이 안 될 수도 있다. 줌이 안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나라의 날씨나 이런 게 대한 걱정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인터넷이나 이런 줌 할 수 있는 이런 it 쪽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저희는 이제 말레이시아 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놓고 수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의상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말레이시아 학생도 저를 바라보고 한국 학생들도 저를 바라보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된다고 해서 수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안 들려서 안 들렸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같이 봐야 할 영상을 준비해서 틀었는데 그쪽에서는 소리가 안 된다거나 재생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 따로 보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섬 학교라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태풍이 불면 수업 자체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 교류국의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기술적인 문제 상황 등은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온라인 교류 수업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된다.

(4) 교류의 내용

그리고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어떤 교사는 교육교류 활동을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였고, 어떤 교사는 외국인을 만나는 정도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재밌게 활동하는 것이 목표였던 교사들은 실제

로 교류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반응, 다른 나라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면서 자신의 교육활동을 되돌아보고, 교육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고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KE1: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냥 외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외국의 학생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이런 예산도 준대. 우리가 알아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된대 그러니까 그냥 쉽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키워줘야 되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고 말레이시아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게 장난으로 그냥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그런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미국 중심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외에 제3국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수업하면서 저희가 틴틴이 말레이시아어를 가르치고 말레이시아 말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야를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평소에 제가 영어 수업을 들어가면 헬로우 티쳐 이 정도인데 때때로 아카카벌 사모아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말을 툭툭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소하게 그냥 쉽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분명히 변하는구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스러워졌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올해 한 번으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좀 더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봐야겠다. 욕심이 좀 더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성도 하고.

KE6: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야 될 세계적인 이슈나 이런 세계 온난화나 그런 지구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걸 보면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았나 싶긴 했어요. 그렇게 하는 교류를 또 보고 경험하면서 저희도 이번에는 그냥 서로의 옷이나 음식 같은 거를 교류를 했지만 또 기회가 생긴다면 조금 더 넓혀서 그간 세계 시민성을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5) 교육활동의 확장

교육교류의 경험은 교사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도 변화를 몰고 왔다. 교사는 수업을 하면서 타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관심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교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 교육교류의 경험을 녹여내고자 하였다. 이전까지는 지식의 차원에서 알고만 있었던 세계의 상호의존, 지구 공동체라

는 문제의식이 “와 닿은 느낌” 즉 정의적이고 행동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E2: 그리고 그거에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달라지면서 그걸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기 전보다는 저는 솔직히 조금 더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의 뭔가 교육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수업에도 조금 그러니까 이 교류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걸 조금 더 녹여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전에도 약간 세계 전 세계가 다 같이 잘돼야 된다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해서 생활하는 패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뭔가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와 닿아서 전달이 더 뭔가 이렇게 아는 거랑 이렇게 느끼는 거랑 전달할 때 좀 다 다르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알 때는 그냥 이런 이런 거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느끼니까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게 되고 세계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오래 많이 다뤘던 것 같고 전 세계에 뭔가 이슈 같은 것들 전쟁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교류사업과 별개로 조금 더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업에 전체적으로.

3) 지원체계

APTE 사업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교사이지만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 활동을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학교장의 이해와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이해와 협력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과 같은 기관이 중간자로서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KE6: 그래서 한번 작년에 하셨던 것처럼 그 학교에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촬영할 때 교장 선생님과 그런 면담의 시간이 좋긴 했었어요. 저희가 이런 이런 수업한다고 결제 맞고 할 때는 그냥 그냥 그런 거 하나보다 하셨는데 직접 오셔가지고서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도 좀 더 이해가 되고 하셔서 그런 작업들이 항상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도 좀에 초대해 달라 알려달라고 하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일이 되니까 그런데 직접 오셔서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기회들이 또 되면 좋겠다.

그리고 교류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의 필요성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교류 사업이었으나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교류국에서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적어도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수업 자료를 “대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준비하였고 교육활동을 구성하였다. 민속 놀이 수업자료를

보내서 학생들이 직접 놀이기구를 직접 만들고 놀 수 있도록 하거나, 한복을 보내서 교류국 학생들이 입어보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발송 상의 문제로 직접 보내지는 못하였지만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떡, 고추장 등의 재료를 직접 보내기 위해 시도하기도 한다. 교사들에게 수업할 때 필요한 수업자료는 중요한 수업의 요소이자 수업 내용이다. 하지만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벽으로 느껴졌다.

KE2: 이걸 하면서 쪽 아쉬웠던 거는 일단 그 나라로 택배를 보내잖아요. 택배를 준비해서 보내는데 이게 자꾸 반송이 돼서 오는데 이거를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도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식품 물건을 다 구입했는데 약간 결국에는 못 보낸 물건도 있고 계속 반송이 돼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태교육원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희 나라는 다행히 다 가는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나라이긴 했는데 택배를 약간 안 보니까 우체국으로 못 보내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해결 수가 있나요.

KE6: 제일 어려웠었던 게 서로 교수 자료나 학습 활동 자료를 택배로 주고받았는데 저는 말레이시아에 택배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얘기를 좀 잘 못 듣고 해서 그래서 한 3박스를 준비해서 이거 이거 민속 놀이 수업자료 사 가지고 제가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한계도 되게 많고 또 갔다가 이게 제한 항목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세금 무게에 따라서 그쪽에 받을 때 거기에 내는 세금이 또 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내고 싶다고 다 보낼 수는 없고 또 하다가 떡볶이 수업 재료였는데 또 떡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해서 택배로 보내러 갔다가 다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싸서 다시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미리 정보를 알면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편 언어 지원을 기대하기도 한다. 양국의 교사가 모두 영어가 가능한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경우 교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부담이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언어가 해결”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KE3: 저학년 학생들과고 이제 국제교류, 교육교류를 하고 싶어도 이 아이들은 이제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교사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마 저학년에 맞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통역 지원이 있

다면 훨씬 더 이제 저학년 선생님들도 폭넓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대부분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들도 많이 하지만 영어 교과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참여교사와의 관계

참여교사와의 관계는 연구회 교사와의 관계 즉 국내 교사와의 관계와 해외 교류학교 교사와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내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역할 분담’이다. 즉, 각자의 위치에서 담당할 역할을 정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 협업의 방식은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한 경우가 많았다.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교사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KE4: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게 됐을 때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 안에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의 고민은 뭐였었냐면 이거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조금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들하고 근데 만약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언어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웠겠죠.

KE6: 저랑 또 제가 4학년 영어 전담을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약간 협의하면서 수업을 같이 교육과정을 짜고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또 3학년에 한 선생님이랑 이제 네 분이 모이게 돼서 처음에는 그냥 다문화 교류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듣고 함께 참여하고 하면서 좀 어떤 건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교류한 국가가 말레이시아였는데 말레이시아는 언어가 말레이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지만 영어도 쓰고 있어서 영어로 다른 나라와 또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언어가 또 영어가 되니까, 그런 것이 또 제가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영어 교육의 목표도 다양한 문화 영어권 문화나 영어를 통해서 그 새로운 문화를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이제 목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4학년 한 반을 대상으로 직접 말리 선생님들과 교류를 했지만 저희가 10반을 가르치고 있어서.

교육교류라는 것이 외국 학교와의 교류이기에 언어는 큰 고려사항이다. 연구회 단위로 신청하였기에 언어가 가능한 누군가와 함께 팀을 만드는 방법으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만약에 개인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이었다면 언어로 인해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교사들도 다른 교사와의 협업이라는 방법을

통해 언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교류국 교사와의 협업 과정은 교사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타국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의 선생님에서 '외국의' 선생님이 인식하게 된다. 즉, 국적, 언어, 거주 공간, 근무 장소도 다르지만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는 같은 '교사'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KE6: 저랑 한 선생님이 좀 긴밀하게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을 제가 이제 협조하면서 함께 수업했고 제가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미리 그 선생님께 사전에 좀 미리 사전 작업도 드리고 좀 많이 서로 이렇게 1 대 4명, 4명이지만 좀 약간 1 대 1로 매칭이 돼서 수업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준비하신 수업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여러 가지 의상을 수업하고 난 다음에 그 추후 활동으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꾸미기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또 4학년이고 시간도 짧아서 약간 저는 임의로 콜라주는 좀 시간이 걸리니 이제 채색하는 거 색연필이나 싸인펜을 수색하는 거로 일단은 해서 그때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본인 이제 추구하는 거는 콜라주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그거를 못 해서, 그래서 그거를 추후에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근데 제가 또 영어 수업 전담이라 많이는 담임이 아니니까 그런 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면 좀 과제를 내주는 건 어떨냐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주말을 하는 건 어떤 거냐 계속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몇 작품을 또 계속 그걸로 한 차례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또 그런 추후의 과정도 있었고 저는 한복 수업을 했는데 한복을 미리 선생님들이 입으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자료로 근데 그분이 내가 입는 입기보다 우리 한 학생한테 입혔더니 잘 어울리더라 수업 중에 학생이 모델로 입으면 어떨냐 하셔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학생이 누르고 한복을 입고 좀 화면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그 학생을 모델로 학생들이 봤는데 그런 제가 준비한 수업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또 한복은 어떻게 입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여쭙보셔서 미리 이렇게 입으면 된다고 하시고 이후에 저는 또 색동 놀이계를 이렇게 만든 활동이 있었는데 좀 차시 수업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사전 작업도 드리고 사후 작업도 드려서 한 차시 수업 40분을 하지만 사전과 사후에 서로 교류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한 선생님도 차시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최대한 학생들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것이 또 교사로서의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해서 오프라인 교류였지만 그런 수업 전후에 서로 설계를 같이 하고 제가 원하는 수업 목표를 나누고 하면서 많이 좀 교류를 한 것 같아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교사로서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선생님이 시지만 교사로서 수업에 대한 태도나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같이 수업을 같이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는 교사들처럼 그러한 교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걸 느껴서 좀 친밀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편, 온라인 교류에서 참여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다.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후속 활동을 진행하기를 기대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몇 개월 만난 인연은 그렇게 끈끈하지 않았다.

KE2: 이제 그 뒤로 저희도 이제 후속 활동이 없는 거죠. 사실 더 후속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것보다는 딱 3개월 저희가 교육 활동하고 진짜 너무 잘했어 너무 고마워, 안녕하고 더 이상 이제 연락이 없다보니까 이게 이제 더 장기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만약 그쪽 학교에 가서 직접 선생님들을 대면하고 같이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다면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제 안부도 묻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시켜 나가기가 조금 더 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3개월간 열심히 의사소통하고 수업을 준비했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니 이전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은 온라인 교류의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이다.

라. 학생들의 반응

타국의 교사나 학생들을 만남을 경험한 학생들의 모습의 모습은 흥분, 관심, 다이나믹, 즐거움, 의욕 등의 단어들로 묘사된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류의 경험은 꼭 참여하고 싶고, 언제 하는지 궁금한 즐거운 수업의 기억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KE1: 그래서 좀 놀랐던 경험이 평상시 수업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 익사이팅 이런 느낌이 학생들의 반응 자체가 훨씬 더 좀 더 적극적이고 네 그냥 아마 제가 파워포인트나 교재 가지고 애들아 세계 시민이 되어야지 세계 시민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말레이시아에 대한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나라랑 우리랑 똑같네 별반 차이가 없네 재들도 나랑 똑같구나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해가는 것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레이시아 까만 사람들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 이런 말들을 했다면 그 수업이 이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우리랑 똑같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지금도 즐겨 불러요 말레이시아 노래를

교사는 학생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놀랐던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상당히 몰입하고 흥미

도가 높았다는 것과 교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교류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교류수업을 통해 없어졌다. 교사는 교류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 피상적으로 가르치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KE1: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 피상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경각심 반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온라인이지만 실시간으로 타국의 교사나 학생을 만나는 것은 “너무 너무 하고 싶은” 활동이다. 교사들이 기억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엄청 의욕이 가득 차 있었고, 재미있게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였다. 학생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담은 신나는 수업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협동적인 수업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E2: 저희 반 친구들은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 두 명을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도 막 이제 선별을 사실 했거든요. 너무 너무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하기 전부터 이미 의욕이 가득한 거예요. 의욕이 가득해서 뽑은 다음부터 이제 언제 해요. 저희 너무 하고 싶어요. 언제 시작하나요. 막 계속 물어보고 하는 중간에도 오늘 하는 날이면 두 친구가 오늘 하는 날이다. 오늘 약간 기대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다른 친구들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제치고 한 거잖아요.

KE2: 원래부터 좀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그런 게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았고 그리고 같이 해서 원래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학급 친구들이 같이 하니까 약간 그런 걸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약간 야 오늘 이런 이런 거 하잖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반 친구들이 이상하게 뭔가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뭔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는데 책 같은 것도 약간 혼자 읽을 때는 그게 막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 같이 읽을 때는 좀 좀 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반 약간 빅이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약간 이 수업도 같이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이 있을 때 약간 오늘 그거 하잖아 약간 오늘은 뭐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 좀 했었어요. 약간 조금 관심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수업할 때보다 두 번째 수업할 때가 더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를 조금 더 깊게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교류수업을 하는 날은 “그거”하는 날이다. “그거”는 학급의 빅이슈 즉 평소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모두가 집중하는 “이벤트”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처음 할 때보다 두 번째 수업할 때 조금 더 깊게 참여를 했던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이 활동을 더 오래, 많이 했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세계시민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자들은 언제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맞추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교육교류사업은 다수의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기존에 교실과 학교에서 실시해 왔던 교육활동이 모든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학생들은 실시간 쌍방향 교류 수업을 가장 선호했다. 교류하는 교류국의 교사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신나고 흥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KE1: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하니 서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 학생들이 보잖아요. 대답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도가 높았거든요.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었으면 저만 그냥 가서 보고 제가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쌍방향 실시간으로 보니까 너무 좋았던 부분이기도 해서 제도적 지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온라인만 오프라인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수업을 6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서로 학생들이 얼굴 보고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분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오프라인 교류는 교사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물론 오프라인 교류를 경험한 교사들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수업으로 실현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없다. 학생도 ‘직접’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필요하다. 타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이 있어야 학생들의 경험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마. 온라인 교류의 장단점

1) 온라인 교류의 장점

첫째, 교육교류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온라인이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교류의 경험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프라인 교류라면 거주지와 직장을 이동한다는 부담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된다. 하지만 온라인 교류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서 교류를 할 수 있기에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좀 더 다양한 선생님들이 교류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 번 교류를 경험한 교사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유형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류를 제안하고 안내하는 교류의 동심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온라인 교류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다양한 도구,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타국의 학생들과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고민하였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초연결 사회를 경험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실현한다. 언제 어디서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으며, 양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한 공간에 모일 수 있고, 한두 반이 아니라 여러 반이 참여하는 교류,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교류도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타국의 교사 그리고 학생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지구 반대편에 거주하는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지구 공동체로서의 실체감을 제공한다.

네 번째는 학생 중심 수업의 실현이다. 온라인 교류에서 학생 중심 수업이 훨씬 효과가 좋으며,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자료를 만들어 온라인상으로 공유하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수업자료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만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이 의미 있는 수업으로 기억된다.

2) 온라인 교류의 단점

첫째, 온라인만으로는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담보할 수 없다. 온라인 교류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만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교류를 지속하는 구심력이 사라지면서 지속적인 수업 교류 혹은 인간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교사들은 끈끈한 인간관계야말로 교육교류를 지속하는 힘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온라인 교류로만 이어진 관계는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기술적 제약과 차이의 문제가 있다. 온라인 수업은 기기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류 활동이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교류 자체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류 교류국과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교류를 진행하는 걸림돌이 된다.

셋째, 교류국에 대한 불이해 혹은 오해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오프라인 교류는 현지에 가서 공간을 공유하며 현지의 교육 환경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마주하기에 교류국에 대한 이해가 개선된다. 반면 온라인 교류 상황에서는 교류국가의 교육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경우 교류국가에 대한 오해나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 국내 중등학교 교사

가. 참여의 맥락

2022년 9~10월 APTE에 참여했던 중등교사 6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1명은 2019년 오프라인 교류에 파견교사로 참여하였고, 5명은 2021~2022년 온라인 교류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맥락은 그들이 소속된 학교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 학생을 위하는 마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KH6교사는 학생들에게 외국인 교사에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주고자 APTE를 신청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저소득 가정배경인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달리 해외를 여행한 경험과 외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영어학원에 다닌 경험이 거의 없는데, APTE를 신청하면 3개월 동안 해외 초청교사의 수업을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외국인 교사와 만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다. KH6교사는 2012년 초창기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에서 온 초청교사를 지원하는 협력교사로서 참여하였고, 2021년 온라인 교류에도 참여하였다.

KH6: 우리처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외국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아보는 경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무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을 간다든지 또 부모님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만나보고 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특성화고에 오는 학생들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주류가 아니죠. 비주류에 속하는 가정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등학교까지 외국인을 한 번도 안 만나봤고 대화를 해보거나 수업을 하거나 직접 밀도 있는 얘기를 해보거나 하는 경험은 전무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진학하는 것보다는 취업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하면 자기가 만든 제품, 우리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은 대부분이 수출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은 외국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인 바이어가 회사에 방문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더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세일즈나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이런 거는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한테 훨씬 더 절실하고 긴박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압세유에서 이렇게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해서 외국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석 달간 근무하고 그것도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돈을 줘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딱 맞는 거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교육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외국 선생님들이 와서 그것도 영어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죠. 그러면 제가 통역을 하거나 다른 선생님이 통역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협력 교사, 한국에서 해외 선생님들을 위한 일종의 코디네이터죠.

2) 해외파견의 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열망

교직경력 32년 차인 KH1교사는 2019년 캄보디아 교사교류사업에 참여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KH1교사는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했던 대학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전공 수업에서 외국문화를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외국문화에 대해 아는 만큼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한국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해외에 나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대학에 편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렇게 10년을 준비하고 교원 해외파견에 대해 알아보던 중 APTE을 알게 되어 지원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온라인 교사교류사업에는 신청하지 못했지만, 오프라인 교사교류가 활성화되면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다.

KH1: 언어 교사로 재직하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교사자격증을 뒀고, 그러다 보니 아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파견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6개월 캄보디아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코로나 전이라서요. 한국어로는 외국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파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예전에 지원했었는데 불합격해서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교사자격증을 따고 2019년에 지원하게 된 거죠. 코로나 풀리면 모르겠어요. 아태교육원에서 교사들을 얼마만큼 뽑을지

3) 자발적, 주도적 참여

KH4교사는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육교류에 관심 있는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 안 교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세계시민교육을 공부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교사문화가 이미 형성된 상황이었기에, 우연히 APTE 공문을 본 KH4교사는 같은 동아리 교사들과 상의하여 신청할 수 있었다. KH4교사는 한국 교사가 교류국으로 가고 교류국 교사가 한국으로 오는 오프라인 교류였다면, 부담스러워 신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교류방식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왔고, 수업시간을 조율하는 부분도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여 신청했다.

KH4: 저희 학교 안에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임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올 2월에 공문을 보게 된 거예요. 다문화가정 국가와의 국제교육교류라는 공문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교사들이 직접 타국으로 가야하거나 아니면 타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런 식의 실제 오프라인 교류라면 오히려 더 참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할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하고 그쪽 친구들과 하고 시간 조율하는 게 온라인이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모임하는 선생님들과 논의해서 신청을 해보자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4) 비자발적 참여: 동료 교사의 권유

KH2, KH3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의 권유로 APTE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파견교사로 2년간 근무한 KH3의 이력을 알고 있는 동료교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좋았던 KH3은 동료교사의 권유에 고민했지만, 참여하게 되었다. APTE에 대해 몰랐던 연구참여자들이 동료 교사의 권유에 선뜻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류방식의 영향이 크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결같이 만약 오프라인 교류방식이었다면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KH2: 겨울방학 때 저희 팀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같이 지원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대면 교류 방식이면) 재고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개인적인 상황도 맞아떨어져야 하고 또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KH3: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추천해주셨어요. 제가 외국에서 근무하고 올해 한국에 왔거든요. 인도네시아에 한국 학교가 있어서 거기 근무를 2년간 하고 올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한국 애들이랑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했어서 그래서 이런 활동을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외국 학생들과 활동을 같이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처음에 권유를 해주셔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정말 외국에서 학생들과 뭔가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도 있고 재밌는 활동일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5) 비자발적 참여: 학교 분위기

KH5교사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학교 전체 분위기에 의해 2021년 태국과의 온라인 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KH5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APTE가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들어왔다. APTE는 다른 지원사업처럼 특정 부서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동아리가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KH5교사도 참여하게 되었다. 첫 시작은 비자발적이었지만, 마침 영어교사인 KH5가 소속된 외국어과에서 다문화, 국제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점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KH5: 저희 작년에 2021년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태국하고 했었고요. 저희 경기도 소속인데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고 다양한 사업 같은 것들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나 온라인 교과서 연구학교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들어와서 다른 것들처럼 약간 학교에서 어떤 부서가 맡아서 이렇게 행정부서 중심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사 동아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때 교육과정상으로는 학교 자율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학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저희 외국어과에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도 약간 다문화 국제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 융합 프로젝트 이런 건데 그 과정하고도 또 잘 맞고 해서 좀 학교 안팎에서 뭔가 국제적인 그런 국제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동시에 좀 실행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또 동아리 교사 동아리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행정부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라도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텐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 뭔가 자발성이 생겨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또 애초에 이렇게 마음 맞는 선생님들끼리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자발성이나 주도성 같은 게 더 발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나. 준비과정, 교육활동 및 지원체계

1) 준비과정⁵⁾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교류사업은 학교 단위로 조직된 연구회가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같은 학교 소속교사 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교류국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한 명의 영어교사와 APTE에 관심 있는 교사 3명으로 구성되었다.⁶⁾ 영어교사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교류국 교사와 소통하여 앞으로 공동수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조율하였다. 또한 3명의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교류국 교사들과 소통하며 수업 준비를 도왔고, 수업에 참여하여 통역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APTE는 학교 자율과정⁷⁾ 내에서 진행되었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된 경우(KH2, KH3, KH5)와 방과후 동아리 시간에 진행된 경우(KH4)로 구분된다. 교류국과 수업 시간을 조율하여 양국 학생들이 함께한 공동수업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국 교사 연구회에서 3시간을 진행하고, 교류국 교사 연구회에서 3시간을 진행하였다.

준비과정은 양국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양국 교사들이 중점을 두고 조율한 부분은 수업 주제, 수업 진행 방식, 수업 시간이었다.

양국 교사들은 온라인 교육교류의 주제로 환경을 선택하였다. 환경을 주제로 하되 실제 수업은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교류국 교사에게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수업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교류국 교사들은 3시간 중 1시간은 문화를 주제로 한 수업을 하면서 문화교류를 하고자 했다.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1시간의 공동수업을 환경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전체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1시간 수업의 주제를 환경에서 문화로 변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 교사들은 3시간 실시간 수업을 모두 환경을 주제로 진행하였고, 교류국 교사들은 2시간은 환경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1시간은 문화를

5) 준비과정과 교육활동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준 2022년도 APTE 참여 교사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6) 연구회 구성은 참여연도에 따라 달랐다. 2021년도 APTE에 참여한 KH5교사는 연구회는 총 5명으로, 4명의 영어교사와 1명의 지리교사로 구성되었고, 외국어과가 중심이 되어 진행했다고 했다.

7) 고등학교에서 자율과정이란 1단위(50분 수업을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의 수업 중 1회를 교과 또는 타 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출처: 경기도교육청(2022). 고등학교 학교 자율과정 실천하기)

주제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했다. 한국 교사들은 환경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양국 학생들이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환경이라는 주제와 문화교류를 접목하고자 했다.

KH2: 사실 문화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캄보디아 국가 선생님들과 협의를 할 때 살짝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이 캄보디아 국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문화적인 교류를 원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자체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던 한 학기 정규 수업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구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과도 저희 한국 선생님들과도 이미 환경에 관련해서 한번 프로젝트 형태로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는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화 교류 사업인데 아이들과 어떤 부분에 대해 교류하고 어떤 부분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어찌 됐든간에 환경이 환경 문제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고 다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이 나라에는 어떤 환경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면 되겠지 하면서 수업을 구상했었던 것 같아요.

KH3: 거기도 두 번은 환경 관련된 수업을 하셨어요. 거기는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하셔서 수질오염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축제로 축제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들이 심한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나의 주제로 하시고 마지막 수업은 문화 관련된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캄보디아 음식 만들기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 캄보디아 음식을 만들고 거기 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음식 만들기 수업을 했어요.

한국 교사들은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이 환경이라는 주제를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데 문화교류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한 반면, 교류국 교사들은 문화교류의 초점은 고유한 문화 자체를 교류하는 수업에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러한 의견 충돌을 모든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APTE를 방과후 동아리 수업으로 진행한 KH4교사는 한국 교사 연구회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흥미롭게 본 캄보디아 교사 연구회와 협력하게 되어, 양국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결정하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했다.

KH4: 첫 번째 주제가 제로웨이스트라고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약간 기후 위기 쪽 주제였고요. 두 번째가 동물권 다음에 세 번째가 불평등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캄보디아 팀 한국 팀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진행했구요. 주제는 저랑 캄보디아 선생님이 정했구요. 사전에 저희가 애초에 신청서를 낼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이런 식의 세계 시민교육 주제를 가지고 모둠 활동을 하고 싶다고 애초에 저희 학교가 신청서를 낼 때 그렇게 냈었고 캄보디아 선생님이 저희 제안서를 보시고 되게 흥미로워하셔서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제안했던 거에서 조금 조율을 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 거예요.

동아리 수업은 양국 학생들 4명이 한 팀이 되어 각 팀이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캄보디아 교사들은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 수업방식을 배우면서 진행되는 캄보디아 교사들의 노력으로 공동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동아리 수업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원 가기 전 시간대에만 가능했는데, 이 부분을 캄보디아 교사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것으로 맞춰주었다.

2) 교육활동

(1) 과학 수업

과학교사인 KH2가 담당하는 과목 중 하나가 '생활과 과학'인데, '생활과 과학'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성취기준 내에서 내용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어 정규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 진행이 가능했다. KH2교사는 수질오염을 주제로 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 앞 하천의 물을 수집하여 수질오염원을 분석하고, EM 머드볼⁸⁾을 만들어 하천에 방류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했다. 그중 EM 머드볼을 직접 만드는 활동 수업을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실시간 수업으로 선택하였는데, 학생들의 활동 중심 수업은 교사가 이론을 설명하는 수업보다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위해 캄보디아 선생님께 EM 머드볼 만드는 방법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미리 전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수업은 학생들이 서로의 모습을 Zoom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EM 머드볼을 제작하는 과정과 원리, EM 머드볼 활용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8) EM 머드볼(EM 흙공)의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줄임말(유용한 미생물)로, 수질오염 악취와 독성 미생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KH2교사가 속한 연구회의 다른 교사들도 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였다. 국어교사는 학생들이 환경 관련 포스터 혹은 배너를 만들고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캄보디아 선생님께 수업과 수업 진행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안내하고, 모둠 활동을 위한 모둠 구성을 부탁하였고 그렇게 양국 교실이 준비된 상태에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KH2: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공통으로 잡고 각 교과별로 교과 수업에 녹여낼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생활과 과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질오염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학교 바로 앞에 곤지암천이라고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천에 나가서 물을 수집해서 하천의 수질 오염도도 분석을 해보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비오염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플로깅을 하면서 비오염원도 한번 주위 보고 분류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거쳤고 이제 마지막 후속 활동으로는 저희가 EM머드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EM머드볼을 만드는 과정을 캄보디아 학생들도 같이 공통으로 하는 수업으로 구상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 EM머드볼을 제작을 해서 숙성을 시켰다가 직접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작업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수업을 진행했고 [중략] 일단은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저희가 언어적인 소통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친구들도 한국어를 못 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을 저희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활동할 수 있는, 활동형으로 수업을 구상을 했었고, EM머드볼을 만드는 방법이나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 이런 것들을 미리 캄보디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놓고 미리 그걸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 안에 친구들과 같이 그거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들고 이게 어떠한 원리이고 이거를 왜 만들어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 국어 수업

국어교사인 KH3는 3학년 고전읽기 수업의 1시간을 캄보디아와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KH3교사는 환경의 하위 주제로 지구온난화를 선택하였고, 고전읽기라는 과목에 맞게 환경을 주제로 한 그레타 툰베리의 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양국 학생들이 Zoom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 등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였다. 수업에 함께 참여한 양국의 영어교사가 언어적 소통을 도와주었으나,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대화로 나누기에는 어려워 그림을 활용하였다. 그림과 간단한 영어로 학생들이 생각을 발표하면 이를 Zoom

을 통해 공유하였고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KH3교사는 동시 수업을 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캄보디아 교사와 학생들이 Zoom 화면을 통해 한국 교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KH3: 저희가 이 활동을 할 때 이제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교과가 수업을 하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환경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학교에서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시민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환경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되게 많이 했고 환경을 가지고 다양한 교과들을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환경을 주제로 잡았어요. 제 수업에서는 지구 온난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고전 읽기다 보니까 책을 하나 선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이건 추천을 받았던 건데 그레타 툰베리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영문 버전도 있고 한글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학생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책은 애들이랑 다 같이 읽고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거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검색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외국 학생이랑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어요. 언어적인 소통이 좀 어려웠는데요. 근데 캄보디아에도 저희는 영어 선생님이 동시통역처럼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캄보디아에서도 영어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활동 과정에서 대화를 많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림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영어랑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이렇게 줌으로 보여주고 패들렛 사이트에 올려서 서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중략] 사실 동시 수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줌을 열어놓고 저희 애들이 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한 3~4개를 그러면 이제 줌에서는 저희 수업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을 그쪽에서도 이제 통역을 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봅시다 하면 저희 애들도 하고 그쪽도 하고 거기는 거기 선생님이랑 제가 사전에 부탁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조를 해주시고 또 활동이 끝나면 저희 애들이 줌 앞에서 발표하고 거기 애들도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주고 그러면서 다 같이 또 서로 질문도 하고 의견도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줌을 활용해서 많이 했어요.

(3) 동아리 수업

동아리 프로젝트 수업은 정규 수업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아리 수업은 환경을 대주제로 하여 체로웨이스트, 동물권, 불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4가지 하위 주제로 캄보디아 팀과 한국 팀이

각각 문제해결 활동을 하고 이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활동한 후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므로, 4가지 주제는 사전에 캄보디아 교사들과 협의하여 조율한 것이다. 교육활동은 비실시간 수업과 실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비실시간 수업에서 교사가 4가지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주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렸다. 이때 자신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함께 올렸다. 그리고 양국 학생들이 모둠별로 자신들이 선택한 환경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실시간 수업은 Zoom을 통해 교류하는 수업 시간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모둠별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3시간 정도 가졌다. 문제해결과정은 문제 찾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해결방법 찾기, 문제해결방법 실천하기의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한국과 캄보디아 학생들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설계하여 해결하는지를 공유하고자 했다.

KH4: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국가와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했고 그게 어떻게 표현될지도 궁금했고 아이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천 활동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 실천 활동을 어떤 걸 디자인할지도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얼타임이 아닐 때는 맨 처음에는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서로 잘 모르니까 친구들 소개하는 소개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각 팀이 각 팀마다 스텝별로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미션을 하자고 결정을 하고 모든 모둠이 동일하게 그 미션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넌리얼타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리얼타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한 거를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모둠별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텝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아쇼카 문제 해결 방식을 도용을 좀 했었거든요. 처음에 문제 찾기 그다음에 그게 왜 문제인지 분석하기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법 찾기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걸 실천하기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 때는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걸 했었죠. 저희가 온라인은 리얼타임으로는 세 번을 했고요. 리얼타임 세 번 하고 넌리얼타임이라고 그냥 자료 교류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피피티로 만들거나 다른 이미지로 만들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는 거는 3번, 리얼타임 세 번 넌리얼타임 세 번, 이렇게 총 6번을 교류를 했어요.

(4) 언어 장벽

APTE 참여 교사들은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언어 장벽을 경험했다. 대면 수업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한되어, 온라인에서

의 언어 장벽은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넘어서기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화면 속 교사를 보는 학생들은 화면 속 교사의 언어가 같은 교실에 있는 교사의 통역으로 전달되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데, 교사의 통역이 원활하지 않아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도 했다.

KH2: 활동을 구상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넘어서기 힘들었던 그런 장벽들이 있었어요.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라든가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어려운 게 아마 언어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같이 독대하면서 뭔가 모션도 해가면서 교류하는 거와는 달리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화면을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로만 전달을 해야만 하니까 이게 언어를 거기서 번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셨거든요. 한국어도 좀 잘하시고 캄보디아어로도 번역을 해주실 수 있는 번역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조차도 이제 한국어에 완벽히 능통하신 분은 아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영어에 능숙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언어적인 소통을 되게 능숙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활용해보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어교사가 유창하게 통역을 하더라도 긴 설명을 할 때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통역을 위해 영어교사가 교실에 항상 있어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영어교사가 모든 수업에 참여하여 통역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KH3: 언어가 너무 다르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국이니까 당연한 건데 영어 선생님만 안 계시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물론 영어 선생님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영어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과는 외국인하고 유창하게 대화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건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를 봐라 이런 것들, 잘 들어봐라 이런 건 해보겠는데 정말 장문의 설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환경오염이 이렇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약간 이런 전문 회화가 돼버리면 그때는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교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교과 교사들은 내 수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기도 했다.

KH2: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수업을 컨트롤을 못 하겠으니까 영어가 되고 소통이 돼야 제가 제 수업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군

가한테 기대어서 소통하다 보니까 조금은 내 수업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교사들도 의사소통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APTE를 이끌어가는 리더교사로서 영어교사들은 혼자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한 명 정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교사가 있었으면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의사소통 부분만 힘들었기에 재미있게 APTE를 진행할 수 있었다.

KH4: 일단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사들 중에서도 영어가 되는 교사가 저분이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과학 선생님 두 분이랑 사회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저 이렇게 네 명이 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영어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쩔거나 리더 교사로서 다 이렇게 통역도 해드려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한두 분 정도 영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근데 뜻에 맞는 사람과 해야만 사실은 이게 성과가 나오는 교류라서 이게 단순히 언어만 된다고 또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다행히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워낙에 이제 친한 선생님들이었고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언어적인 부분만 제외하고는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고요.

영어교사들은 학생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통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영어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한국 학생들의 언어 장벽을 깨뜨리는 것도 힘들었고, 교류국 학생들의 유창하지만 고유의 억양이 있는 영어를 듣고 학생들에게 통역하는 것도 힘들었다.

KH4: 아이들의 언어가 또 문제였어요. 저희 학교가 되게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프리토킹이 자유롭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쪽 캄보디아 친구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어떤 장벽을 좀 깨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도하는 교사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건 제가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아이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까지 제가 커버하려고 하니깐 그거는 되게 큰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보다 잘했었고요. 근데 문제가 캄보디아 고유 언어의 억양이 많이 묻어나서 알아듣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되게 유창하게 하는데 억양이 너무 강해서 제가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리얼타임을 할 때까지도 학생들의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쪽 선생님께 계속 뭐라고 하는지 다시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어요. 근데 한 세 번째 리얼타임부터는 애들 말을 알아듣겠더라고요.

KH5: 우리 학생들이, 그쪽 학교 학생들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되게 못 알아듣는구나. 또 우리가 어느 한쪽이 네이티브면 괜찮은데 서로의 액센트를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상황 이잖아요. 노출이 처음 돼 보는, 이제 교사들은 다양한 액센트에 노출이 돼 봤는데 학생들은 처음이니깐 그것도 잘 못 알아듣고 음향의 소리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또 재미있긴 했어요.

(5) 온라인 연결 장애

수업시간은 50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끔 인터넷 연결 혹은 Zoom 오류가 일어나 수업이 지체되는 일도 있었다. 대면 교류였다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 교류에서는 수업이 지체되었을 때 시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KH2: 수업이 50분 정해져 있는 그 수업 시간 내에 모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인터넷 연결 상황이나 아니면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류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시간적으로 지체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이제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교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조율하고 융통성 있게 해결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지원체계

APTE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경기도에서 시행된 학교자율과정의 영향이 크다. 2022년도에 참여한 KH2교사와 KH3교사는 교과융합활동으로 APTE를 진행하였고, KH4교사는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으로 APTE를 진행하였다. 2021년 APTE에 참여했던 KH5교사가 소속된 외국어과는 학교자율과정을 다문화와 국제화를 주제로 한 학기 교육과정을 계획하던 중에 APTE에 참여하면서 APTE를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등 KH5교사가 소속된 학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되어 메타버스, AI 등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APTE를 진행할 수 있었다.

KH5: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이렇게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 교과서도 저희가 학교 자율과정을 하는데 거기에 마침 과정이 국제화 다문화였거든요. 또 다른 교과군에서는 AI하고 또 다른 교과군에서는 문화예술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는 대부분 외국어 교사로 이루

어진 동아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다문화 국제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들하고 하려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센터나 외국 기관하고 연결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런 것과 되게 이질감 없이 연계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잘 연계됐던 게 학교 자율과정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댄스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국제교류 때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 행사도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또 국제교류 학생들이 메타버스에서 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차도 2시간밖에 나지 않고 하니까 학생들도 행사하는 김에 부르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학생들도 신기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끝나고 행사 끝나고도 남아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그리고 그 자율과정을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교과서에 내겠다 해서 온라인 교과서 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교과서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국제교류 동아리를 하면서 사용했던 뭐 인공지능 툴이나 이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또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쪽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단톡방에 인공지능 자동 번역기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급할 때는 그냥 한국말로 쳐도 그냥 바로 번역이 되고

2021년 시행된 학교자율과정은 학교에 자율권과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는 APTE 참여 교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행정실에서는 예산 관리와 수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하였고, 교감과 교장은 APTE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수업 활동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학교 전체의 관심과 지원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양국 교사들의 노력, 소속된 학교 전체의 지원, 아태교육원의 지원을 경험하면서 교육활동이 얼마나 멋진 일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KH3: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수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준비해 주시는 아태교육원 분들도 있고 또 양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는 또 행정실도 있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까지 이 활동을 다 지원하고 도와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교육적으로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한다는 게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되게 멋진 활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우리나라 우리 학교에서는 행정실은 그런 예산 관련해서 이제 보조를 많이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물건 구매도 부탁드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이 활동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오셔서 같이 애들이랑 환경 공도 만들고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앉으셔서 그리고 교감 선생님도 저희가 이제 티셔츠 단체 티셔츠 만들었거든요. 또 그거 입고 오셔서 같이 수업도

보시고 하셔서 되게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관심이랑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애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사했고 캄보디아도 저희 수업 준비하듯이 거기서도 저희가 주문 요구한 물품을 다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했죠.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이 협력하는 과정 자체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이었다.

다. 참여교사와의 관계

1) 교류국 교사와의 관계

온라인 교류사업에서는 교류국과 실시간 수업을 총 6시간 진행하였는데, 한국 교사 연구회에서 3시간을 진행하고 교류국 교사 연구회에서 3시간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일관되게 교류국 교사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교류국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 교사들에게 전해졌다. KH5교사는 교육교류가 끝나고 당시 태국에서는 등교 정지로 학생들이 학교에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했다. 한국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류국 교사들의 모습에 한국 교사들은 새로운 자극을 받기도 했다.

KH5: 그런데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 교류국 학교의 선생님들도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도 굉장히 서로 협업이 잘 되고 또 래포도 좋고 친밀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는 느낌 그런 거 있었고 이거를 일로 대한다든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적극적이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고, 나중에 깜짝 놀란 게 이제 저희는 조금 덜한 상황이었었는데 태국에서는 그때 엄청 학교에 거의 등교 정지처럼 돼 있어서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듣고 나중에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오프라인 교류에서도 한국 교사들은 초청교사의 사명감, 능력과 열정에 자극을 받아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한국의 교사문화에 대해 성찰했다. 그리고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초청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보면서 협력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KH6: 협력교사로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몽골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은 저도 교사지만은 그렇게 그 나라에서 선발돼서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예요. 우리나라 어떤 선생님들보다 훌륭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열정이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소명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교사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많이 함량이 모자라지만 근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같은 교사로서 정말 우수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알거든요. 학생들이 알아요. 말이 잘 안 통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자기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한다 이런 거를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거는 그 언어를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유능한 분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이 한두 시간이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접촉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했고.

2) 국내 교사들과의 관계

(1) 협력의 정도 차이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은 같은 학교 소속 교사 4~5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회 교사들의 관계와 협력의 정도는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KH4교사가 속한 연구회는 오랫동안 서로의 교육 철학과 관심 분야를 공유해왔던 교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캄보디아 교사들과 협의한 4가지 하위 주제를 누가 담당할 것 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서로 관심 분야를 잘 알고 있어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교사가 누구인지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KH4: 저희 선생님들끼리의 팀웍이 좋으니까 저희는 사립학교에서 꼭 같이 근무해오고 같이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해왔던 사람들이라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주제를 네 가지 주제를 하면서도 이걸 누가 맡을지를 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주제 이렇게 이렇게 주제가 다 나뉘지니까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교사가 사실은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아이들을 가이드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르는 주제를 다루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가 좀 잘 아는 주제 위주로 처음부터 제안서를 내기도 했었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KH2교사가 속한 연구회는 환경을 주제로 하여, 과학교사는 KH2가 환경 이론에 대해 수업하면 국어교사는 환경을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을 하고 미술교사는 환경을 주제로 미술적으로 표현하는 수업

을 하는 정도로 협력했다. 즉 환경이라는 공통 주제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수업은 각자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KH2교사는 4명의 교사가 함께 지도안을 공유하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완전 협력”을 했다면 더 좋은 교육교류사업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KH2: 뭔가 같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서로 협력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과학이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수업을 한다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논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어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께서 같이 도와주셨고 이런 정도의 협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협력해서 수업을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더 좋은 교류사업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따로 따로 수업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주제만 공통으로 같이 협의해서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련해서 각자 수업을 만드셔서 각자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뭔가 프로젝트 형태로 모든 교사가 다 같이 지도안을 공유해가면서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저건 저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협력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 영어교사와의 협력

KH2교사와 KH3교사는 영어교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APTE 참여가 가능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교사들에게 온라인 교류에서 영어교사의 참여는 필수였다. 오프라인 교류라면 비언어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교류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의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언어적 소통이 더 중요하다.

KH3: 문제는 영어가 그래서, 영어 선생님의 참여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가 영어를 정말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거든요. 물론 캄보디아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있었어요. 한국어를 조금 하실 수 있다고 통역가처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못 알아듣는 수준으로 발음하셔서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야 이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과 교류국의 영어교사들은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통역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수업을 교류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는 교사들에게 서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어교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라. 학생들의 반응

1) 프로젝트 수업의 주체가 되는 경험

동아리 프로젝트 수업에는 학업성취 욕구가 높은 학생 16명이 참여하였다. 학기 초 KH4교사는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그렇게 모인 16명의 학생들과 방과 후 매주 화요일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4명이 팀을 이루고 그 팀을 1명의 교사가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경험이었다. 성취 욕구가 높은 학생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힘들어했고, 그런 아이들을 다독이며 지도하는 것 또한 교사들에게 힘든 일이었다.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나아졌고 성장했다.

KH4: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소규모로 사실 교사 한 명당 학생 네 명이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고등학교에서도 흔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교사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고 아이들도 이걸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려면 이제 아예 시간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선택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입시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입시에 대한 준비 차원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 평소 일반적인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소규모로 계속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새롭고 또 예전에는 여러 명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물어갈 수 있잖아요. 숨어 있어서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이걸 너무 잘 보아서 무임승차가 안 되는 거예요. 4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뭐든지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게 또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굉장한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한 달은 정말 너무 힘들어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계속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사실 첫 달은 첫 한 달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적응하고 선생님들도 적응하고 그러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의 성장은 교사들의 “뼈를 갈아 넣는” 힘겨운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이다. 힘겨운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활동이 끝나자 학생들은 아쉬워했고, 그런 학생들의 모습에 교사들은 다시 힘을 내 “조금만 더 갈아넣자”는 마음으로 2학기 후속 활동을 시작했다. 1학기 동안 성장한 학생들의 역량은 2학기 후속 활동에서 발휘되었다. 교사의 지도와 안내에도 활동들을 해내는 데 어려웠던 학생들이 2학기가 되자 오히려 교사에게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동아리 수업에서 연구하고 탐구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개념은 PPT를 만들어 설명하였고, 다른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게임으로 진행했다.

KH4: 저희 모니터링 오셨을 때 압세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꿈꿨던 방식이다. 이러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하셨죠. 저도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약간 이렇게 옆구리 쭈셔서 하자, 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지라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걸 하자고 했나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선생님들도 성장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또 되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게 감동스럽기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애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플라네츠라고 후속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학교랑 같이 후속 활동을 2학기 때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거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아쉬워해서 또 저희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더 갈아넣자 하고 있습니다. [중략] 플라네츠라고 압세유에서 온라인 교류를 하고 좀 아쉬운 점들을 더 빌드업 할 수 있게 후속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만드신 사업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를 선발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1학기 때 되게 어리버리 했던 애들이 2학기 때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저희도 지금 되게 놀라고 있어요. 1학기 때는 선생님들이 막 시켜야지 겨우 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던 애들이 2학기 때는 자기네들이 먼저 선생님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러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교류의 힘인가 저희가 좀 약간 놀라고 있어요.

2) 교류국과 학생들에 대한 관심

Zoom 화면을 통해 교류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한국 학생들은 교류국과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APTE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 학생들은 교류국(캄보디아)에 관심이 없었다. 한국 학생들

에게는 낯선 국가였고 그 나라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다. 이런 낯섬이 처음에는 새로움으로 느껴졌고 함께 수업하면서부터는 교류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친근감으로 바뀌었다. 수업에 참여한 후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캄보디아의 언어를 찾아보고 일상 표현들은 외워서 써 보고, 국기를 찾아 직접 그려보기도 했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여 스스로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APTE를 통해 교류국 학생들과 만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었다.

KH3: 애들도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더 많이 갖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애들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저희 애들은 근데 그 나라 말을 이제 인사하겠다고 사전을 찾아보고 국기를 그려보겠다고 그 나라 국기를 검색하고 애네는 무슨 말을 써 이러면서 언어도 찾아보고 이런 활동을 자기네끼리 막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수업하기 바로 전에 그러면서 애들이 진짜 호기심 있게 무언가를 찾아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애들은 역시 애들이구나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화한 생각은 이런 걸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교사 입장에서선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괜히 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너무 회의를 자주 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이래서 근데 애들이 막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하니까 이런 걸 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더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쉬는 시간에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지식을 확장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교사로 하여금 APTE의 긍정적 효과를 확신하게 했다. APTE를 마치고 교사들은 APTE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의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보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을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3) 교류국 학생들에게 받은 자극

처음 학생들은 교류국 학생들이 자기들보다 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영어도 잘하는 캄보디아 학생들 모습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다. 교류국 학생들로부터 받은 충격은 자극이 되어 학생들은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 교사에게 질문했고,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KH4: 그래서 애들이 한 학기를 그렇게 국제교류를 하고 나니까 2학기가 되었을 때 이제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가 조금씩 보이거나 봐요.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되게 재미있는 게 캄보디아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 한량처럼 이렇게 있다가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지 재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극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질 수 없다. 그러면서 애네들이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익숙하지도 않고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고 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물론 그걸 입으로 표현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지만 알잡아 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도 심지어 우리보다 잘해 애들이 기가 죽어서 첫 리얼타임하고 애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지 하면서 다들 충격받고 그 뒤부터는 애들이 선생님 이거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야 고쳐주고 그런 과정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마. 온라인 교류의 장단점

1) 온라인 교류의 장점

첫째, 온라인 교류를 통해 한국 교사와 학생들은 교류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록 모니터를 통한 만남이었지만, 다른 국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다는 것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있었다. 특히 막연하게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던 교류국 학생들이 한국의 학생들과 비슷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학생들처럼 외모에 신경을 썼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다. 교사가 “발표해 볼 사람?” 했을 때,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Zoom 화면 속에서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양국 교실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다 똑같구나”를 느낀 순간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품고 있었던 국제교육교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KH2교사는 이를 계기로 직접 교류국 학생들을 만나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도전해 볼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둘째, 온라인 교류는 APTE 참여에 주저했던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온라인 교류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한결같이 온라인 방식이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온라인 교류는 교사들이 느끼는 국제교류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 교류는 교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과 많은 물리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주었다.

셋째, 온라인 교류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이 성장하였다. 교사들은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 이를 교육교류와 접목시켜 진행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

자 발전이라고 했다. 수업방식과 이로 인해 향상될 학생들의 역량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결과가 수업자료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교사들은 참여 경험과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업은 더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째, 영어공부에 대한 열의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 교사들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고 했으며, APTE 참여를 계기로 영어 강의를 신청하고 공부를 시작한 교사도 있었다. 교사들은 온라인 교류 수업에서 교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사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을 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더 다양해지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 온라인 교류의 단점

첫째, 대면 교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온라인 교류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다. 온라인 교류는 대면 교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제한된다. 특히 현장감과 눈빛 교환이다. 대면 교류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눈빛만 보고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Zoom 화면을 통해서는 교류국 학생들과 눈빛 교환을 경험할 수 없다. 공통의 주제를 이야기 소재로 하여 서로의 문화를 소통하는 측면에서도 온라인 교류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게 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과 감수성을 온라인 교류에서 경험할 수 없어서였다.

둘째,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업이 지체되고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다. 수업 중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Zoom 화면이 중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 영어교사가 다른 채널을 통해 교류국 교사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교사에게 주어진 공동수업 시간은 1시간뿐이어서 인터넷 연결 문제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할 수가 없어 어려움 뿐만 아니라 아쉬움도 크게 남았다. 따라서 수업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양국 교사들이 준비한 수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환경 등의 기반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업무의 과중이 온라인 교류의 단점으로 제시되었다. APTE는 기존 수업과 업무에 APTE 관련 업무가 더해지는 구조여서, 이미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신청할 업무를 내지 못했다. 온라인 교류가 업무적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KH1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다 보니 교육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온라인 교류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교사들도 업무의 과중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참여 교사들은 소속 학교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사들이었는데 APTE 업무가 더해지면서 업무의 과중으로 힘들었다고 보고했다.

3 초점집단면담

초점집단면담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 1회씩 두 차례 이루어졌다. 서울에서는 초등 2명과 중등 5명으로 총 7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부산에서는 초등 3명, 중등 3명으로 총 6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서울 참여교사의 경우 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파견을 다녀온 교사가 1명 있었고, 부산 참가교사 중에는 오프라인 참여교사가 4명이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초점집단면담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차후의 보완점으로 정리하였다.

가.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은 크게 교류의 확장과 연결,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지구 공동체라는 인식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교류의 확장과 연결이라는 측면이다. 대면 형식의 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 혹은 학생들이 직접 신체를 이동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고, 이와 동반된 시간, 예산, 위험 부담 등 부차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만약 파견하고자 했던 지역과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 오랫동안 계획하였던 교류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 교류는 이러한 대면 교류의 아쉬웠던 지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FE21: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알콰이라고 이제 APEC산하 기관에서 러시아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교사 교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일본 교류도 계속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교육청에서도 화상 교류라든지 이런 어떤 대면 교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나와서 저희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했었던 한일 어린이집 형태의 통신사라고 해서 대형 통신사라고 해서 저희 학교 애들을 선발해서 일본 아이들을 2세, 3세, 4세죠 이 아이들과 연결을 민단 쪽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걸 멈춘 상태에 있다가 제가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다문화 국가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필리핀 교류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류가 되겠죠. 온라인 교류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대면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적으로 갖고 있었던 교류라는 형태가 정말 산산이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인 것도 아니고 학생들

과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형태의 교류를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시류에 맞춰가지고 화상 교류를 하자는 또 제의가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학생들과 교류를 할 예정이고 후반기에 그다음에 지금 유네스코 중앙교육 교사 연구회 그리고 교사들끼리 같이 세계 시민 관련된 영화를 가지고 하는 연구회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부산 시민 세계시민교육하는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일 교사교류를 통해서 만난 선생님하고 화상 교류 저희 반 아이들하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교사는 교류에 대한 기존에 가진 관념이 “산산히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고 표현한다. 오랫동안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타국과 한국을 횡단하며 교류를 실천한 교사에게 온라인 교류의 경험은 그의 교류 활동에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은 효과가 되었다.

FE21: 어쨌든 온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를 덜 쓰고 그게 진행이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건 이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러시아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1년에 계속 만나고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 시간 약속만 잡으면 애들한테 선생님 이번에 무슨 나라랑 해요? 그러면 라오스 이렇게 하고 가면 또 이제 라오스랑 만나겠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에너지”를 덜 쓰게 하기에 힘들이지 않고 한 번에 일본, 러시아 그리고 라오스 등 여러 나라와 동시에 연결 접속이 가능하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온라인 교류라는 접근은 교사와 학생을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빨리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온라인 교류는 연결을 확장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했다. 단순히 한 교사와 한 학교의 만남이 아닌, 학교와 학교의 만남, 혹은 한 학교(한국)와 여러 학교(외국)의 만남이 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했던 한 교사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FE11: 저는 말레이시아랑 교류할 때 인근 학교도 같이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 대 다섯, 여섯 학교가 함께 온라인 교류를 한 셈인데 그게 아무래도 온라인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전담교사였던 FE11 교사는 파견을 나간 학교와 한국의 본교와 연결하여 당시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온라인 교류를 하였다. 본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류국의 학생들과 만나면서 수업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좀 더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류의 방법은 단순히 파견된 교사와 현지 학생들과의 만남을 넘어서 파견된 교사의 학교와 현지 학교의 만남이 될 수 있었고, 온라인만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인근의 여러 학교가 함께 하는 등 연결의 확장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교류가 확장과 연결이 가능한 것은 예상적인 이유도 있다. 대면 교류의 경우에는 교사 한 명이 해외 학교로 파견되어서 교류국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한국으로 파견 온 교사가 한국의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교류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FE12: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한 번에 좀, 실시간 수업을 가지고 여러 명이 다수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제일 제가 느끼기에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교사(FE13)는 “온라인 교육교류는 소위 가성비가 높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서로 교류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교사는 교류국에서 참여한 학생 600여 명의 참여 확인서(certification)에 교장선생님의 서명을 받아서 보내 주기도 하였는데, 한 학교와 교류하는 교류국 학생의 수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온라인을 통한 교류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가능성이다. 온라인 교류의 방식은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 형태라는 것은 수업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시도하면서 다각적으로 수업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교사 주도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기술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수업을 고민하고 시도한다. 플립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 온라인을 활용한 학생 중심 수업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였고, 학생들이 상호 마주하고 ‘대화’하는 순간 교류가 무엇인지 ‘감’이 왔다고 표현하면서 개인의 수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FE23: 온라인 수업이 처음에는 진짜 교사 주도적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움 중심과 학생 참여가 중심이 되는 이런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이제 이런 걸 하니깐 실제로 이제 본시 수업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

게 하면서 이제 점점 수업이 좋아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교류하면서 애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 제일 활발하게 했던 게 선생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Q&A 시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이 수업들의 핵심은 진짜 학생들 그냥 교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왔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이구나 했어요.

한 참여교사는 온라인 교류를 두 해 연속으로 참여했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자신이 더욱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FE15: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말레이시아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서 저희를 리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올해는 태국하고 하는데 제가 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첫 해에는 교류국 선생님의 리드에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두 번째에는 자신이 두 학교 간의 교류에 있어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온라인 교류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위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온라인 접속의 기술적인 문제들도 능숙해져야 한다. 교사들이 원격 수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는 했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 학교와의 소통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져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한편 2022년도에 처음으로 교류사업에 참여한 FE23 교사는 온라인 교류 수업의 첫 시도는 일방적인 교사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에게 판을 깔아줬더니”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그 방향과 접근이 달라졌다고 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극복하지 못한 기술적인 한계를 오히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넘었고 주도적인 수업으로 연결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희망하였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본인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시작된 수업에 학생들은 만족하였고,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FE22: 저는 오히려 이번에 온라인을 하면서 사실 첫 수업은 정말 일방적인 교사 수업이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만 데리고 하신 거예요. 애들이 와 말레이시아 선생님이다, 처음 봤다. 이런 거 말고는 이제 정말 교육적일 거가 전혀 없었던 거죠. 더구나 네트워크 환경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끊기고 이게 뭘 했는지 저희들이 피드백과 리플렉션에서 아무것도 접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되는 인스타를 통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앱을 활용해서 서로 비디오 채팅도 하고 애들한테 판을 깔아줬더니 물론 애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방송을

하는 일방적 수업 말고 우리끼리 만날 수 있는 수업을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요청이었고 그 요청을 앱을 통해서 온라인의 장점이 그거였었어요. 앱을 통해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너지라는 게 엄청났고 가장 만족스러운 수업으로 아이들을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구나 우리가 여전히 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구나에 대한 이제 정의도 또 자성이 되고 아이들은 그런 걸 바라는구나 그리고 그랬을 때 자기네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사실은 우리가 다 정말 이렇게 옆에 주변에 다 말은 했지만 스스로 자기네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저희도 또 너무 흐뭇하고 보람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교사들이 뭔가를 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1시간 안에 한 10시간 정도 정말 서로 교류했어야 됐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무척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판을 깔아 준” 교사는 이 교류 수업 과정을 통해 결국 교사라는 존재가 교육에 있어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 “판 위에” 올라갔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보람을 느꼈다. 이는 교육의 책임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개별적인 응답을 허용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세계에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Biesta(2005)의 주장과 연결되며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지구 공동체, 세계시민이라는 자각과 성장의 측면에서도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은 두드러졌다. 교사들은 특히 온라인 교류를 통해 교류국과 교류국 교사에 대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인식을 확실히 다질 수 있었다. 교류를 함께 준비하기 전에는 교류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여행을 통해 보게 되는 표면적인 것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 교류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보다 조금 부족함을 가진 나라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기존의 편견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통해 교류국 교사들을 “프로페셔널”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FE14: 선생님들이 사실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당연히 우리보다는 모든 시설이 나 모든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좀 나눠주면 되겠지 그 정도로 했는데 어퍼컷 훅까지 맞고 나서 정신을 번쩍 들어서...

FE14 교사는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권투와 비교했는데, 나보다 약하리라 생각했던 상대에게 큰 펀치를 맞은 느낌이었다. 자신들은 수능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연수는 받았어도 “에듀테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서툴렀다. 하지만 내가 한 수 가르쳐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태국의 교사들이 능숙하게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업 기획과 연출,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FE21 교사는 온라인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에 위안을 가지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상대방과의 만남을 통해 자극을 받고, 문만 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속“메타버스”를 통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FE21: 온라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뭔가 위안을 상당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이 느낌을 저는 사실 아까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나와 다른 나라에 살고 다른 곳에 지금 현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항상 또 자극을 받고 뭔가 내가 또 새로운 걸 해야 되고 항상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같이 보면 좋겠다. 이거는 저쪽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이 막 자는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안에 내 메타버스가 있죠.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문만 열고 하면 필리핀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온라인 교류를 통한 학생들의 변화와 경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만남을 갖다 보니 “세상이 물리적으로 멀지만 가깝구나(FE15)”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고, 외국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험을 통해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교사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구글이나 파파고와 같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말해 좀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FE13).

집중시간이 짧고, 온라인을 통한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초등학생들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었다.

FE12: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 되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도 이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밖에 없는데 거기는 진짜 다양한 전통 의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이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면서 음식과 문화를 설명하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한국에는 전통의상이 한복밖에 없었지만 말레이시아에는 한 학급에도 다양한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 소개해준 아이들을 만나면서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온라인 교류를 거듭할수록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은 시간문제 처럼 보였다. 적절한 에듀테크 기술의 활용과, 연령에 적합한 교수방법의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 교류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온라인 교류의 한계와 보완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온라인 교류였지만 여전히 한계가 남아있었다. 참가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라인 교류의 한계를 관계, 지속가능성,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온라인 교류에서의 관계성은 그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참가교사들은 오프라인 만남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관계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에서 그 순간에만 맺는 관계는 본 사업이 아니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었다. 오프라인 만남으로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 오직 업무적인 관계만 맺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FE15: 온라인은 오직 수업과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그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인간적인 끈끈한 이런 건 없고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 후속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건데 딱 그 상황 끝나면 그쪽도 끝이에요.

FE24: 저도 아까 말했던 걸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그러니까 인적 교류로 끝나는 거에는 확실히 한계는 있는데 그 후속을 하게 하는 건 어쨌든 주체는 선생님들이 되는 거잖아요. 중심에 그때 인적 교류로 맺든 그런 끈끈함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도적으로도 완벽하지가 않고 어쨌든 저희가 그냥 그냥 일반적인 교사가 하는 것보다 약간 엑스트라의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갔을 때 인적 교류를 하는 저도 선생님과 되게 끈끈하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더 하게 돼요.

오프라인 교류를 경험한 교사들은 당시의 교류국 교사와 느꼈던 “끈끈함”이 기반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교류를 이와 같은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관계 없이는 후속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얇은 관계성의 문제는 두 번째 한계점으로 볼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교

사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후속 프로그램을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원했지만 온라인 상에서 업무만 함께 처리했던 교사들은 추가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FE17: 사실 사람이 만나면 서로 관계가 생기니까 좀 힘든 부탁을 해도 오케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이 교류 업무를 위해서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거잖아요. 오직 업무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게 이제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니깐 서로 이제 지속적인 교류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사들 간의 얇은 관계성이 후속활동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면, 짧은 준비기간과 미흡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는 학생들 간의 활동을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일회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한 교사(FE16)는 “일정이 잘 맞지 않아 아이들과 장기적인 활동이 어려웠다”고 하였는데, 서로 맞는 일정을 찾아서 그 시간에 되는 아이들을 동아리든, 학급이든 매치시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벤트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되어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교사들은 사전에 서로의 학사일정과 프로젝트 주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칭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FE16: 이게 한 학기에 끝내려다 보니까 그게 사실 시간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고 저희도 막 막 몰아쳐서 했어요. 학기 말에...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작년에는 계속 취소되고 소포가 안 가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데 그게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또 다른 교사(FE14)는 처음에 3개월 동안 세 번의 수업을 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무슨 세 번으로 수업이 되겠냐면서 9번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한 후에 6번 수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결국 세 번의 수업도 벅차고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FE14: 단순하게 잡아도 한 달에 3번의 수업을 하는데 4주에 3번의 수업을 준비하는 게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고 특히 저희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아침부터 그거 준비하고 체크하고 한다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열정 페이만 가지고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온라인 교류가 특별히 더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 참여교사들은 입을 모아 업무분장 미반영을 들었다. 보통 공립학교는 2월에, 사립학교는 12월이면 완료되곤 하는 업무분장에서 3~4월이 되어야 확정되는 온라인 교류는 업무로서 자리잡을 수 없었다. 또한 이것이 연구회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파견을 간다면 본교의 업무를 하지 않고,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고안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류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거의 두 배의 일을 하는 것이다(FE13)”고 하였다. 업무의 양도 양이지만, 교류를 위해 수업 시간을 바꾸는 등의 일은 참여 교사들을 지치게 하는 큰 요인이었다.

FE14: 심지어 업무분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고려도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뭐 수업이 짝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수업 맞춰서 그 수업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전체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일이 그날 시간 다 바꿔야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은 좀 더 일찍 교류 학교가 선정되고, 매칭까지 완료되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은 3개월이라도 준비기간이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파견을 갔을 때와 온라인 교류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으로 교류를 하는 것은 업무과중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회성 교류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 참여교사들의 문제제기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우선 교육청이나 학교관리자들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이 사업이 교육과정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교사들은 이 사업이 교육청 사업과 다른 장점을 알고 있었다. 예산의 사용이나 사업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롭고, 예산 규모도 커서 열정 있는 교사들이 참여했을 때 충분히 하고 싶은 것들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도 교육청에 다 소속이 되어 있고,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기(FE13)” 때문에 시스템과 부딪히는 속에서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면 교류는 실제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해외 학교에 가서 지내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와 교육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유인책이 매우 크지만, 비대면 교류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중되지만 하는 업무로 다가올 수 있다. 교사들은 비대면 교류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러한 업무과중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 교류는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에듀테크도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교사이다. 단순하게 오프라인 교류와 동일한 방식·기

간·내용의 매칭이 아닌 교사들의 온라인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과 내용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FE25: 온라인 교육하고 또 파견을 갔을 때 관계를 갖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저는 공존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게 딱 사실은 일회성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베트남하고 파견을 갔다가 그다음에 이어지는 단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연계가 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후속 조치로 만약에 a 그룹 b 그룹 이렇게 해서 했을 때 a 그룹은 옛날에 자기가 했던 학교, 그 학교와 온라인 교육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제안서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는 건 정말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후속으로 계속 1년 더 2년을 했다거나 아니면 3년을 했다. 그랬을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이 좀 더 장기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어마한 예산 대비 시너지 효과까지 생각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비대면 교류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참여교사들은 각 학교가 원하는 프로젝트의 주제와 방법에 따라 학교를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FE13: 이 교류를 할 때 3개월 안에 그냥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원하는 타깃과 목표를 좀 분명하게 나누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 문화,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다. 그럼 거기에 맞는 학교 프로그램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고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니까 학술에 대한 게 훨씬 이제 아이들이 관심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영역을 나눠서 모집도 하고 매칭도 되면 더 낫겠다.

한 교사(FE13)는 매칭된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젝트와 자신의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달라서 짧은 시간 안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모두 수행해야 했다. 하나를 하기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두 개를 했어야 하다보니 그만큼 힘이 들었고,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처음부터 관심사가 확정이 되어 운영된다면 시행착오가 없을 것(FE16)”이라고 보았다. 한편, 교사들은 “선진국 한국”이라는 위치에서 교육내용과 교육 교류에 대한 관점과 태도도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FE21: 한국 학생들 위치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 일본을 바라보면 일본은 아주 앞에 있는 국가이고 선진국가 우리가 뭔가 항상 갈망하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일본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점점점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위치가 전혀 예전과 다른 위치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좀 더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한국 아이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한국 아이들의 생활을 좀으로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조금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저는 그냥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약간의 의무와 좀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이 선진국 아이들을 어떻게 선진국 아이들처럼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교류 활동 중에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E22: 내가 그 나라들의 뭔가 정책이나 구조나 또는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악해 또는 미흡해, 부족해 그들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켜줄까에 대한 고민들을 동시에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의 지점을 내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수용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뭔가 민주주의가 덜 안착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을 수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또 다른 우리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좀 변화를 발견하고 그들의 갈 길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사실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뭔가 조금 다음 단계면 더 나올 텐데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나 혹은 욕심 때문에 어쨌면 또 이런 것에서 뭔가 해치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의 고유성을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FE21 교사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예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단지 교류의 즐거움을 넘어서 선진국 학생으로서 “겸손함”과 같은 것을 교육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고, FE22 교사는 지금까지 교류국과의 교류가 그들을 개발 혹은 발전시키고자 하는 호혜적인 입장이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 이는 비단 온라인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온라인 교류로 인하여 교류가 양적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외국(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교사

가. 참여의 맥락

인터뷰에 응한 6명의 해외교사들 전원이 APTE 교사교류사업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도 참가를 희망하고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교육현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류에서도 다른 현지교사들과 한국 교사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때로는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으로 확장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시기에 국제교류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ME: 저는 사실 APTE에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거고, 첫 번째는 2018년이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두 번째]는 온라인이네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참여하긴 했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 준비과정, 교육활동 및 지원체계

해외교사들은 3차시의 온라인 수업에 앞서 한국교사들과 사전 Zoom미팅과 이메일을 통해 수업의 내용을 기획하고 조율했다. 각 차시 수업을 마친 후 자체평가를 하여 보완할 사항에 대해 기록하기도 하고 다음 차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교사들과 소통하였다. 학교급별로 수업 내용이 달랐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문화적 차이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음식, 의상, 춤 등을 통해 즐겁게 운영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상호인식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또는 세계시민교육(GCED)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거나 활동 블로그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과 수업 외 활동을 공유했다. 한편, 해외교사들은 수업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자료나 오리엔테이션의 필요도 언급하였다.

TH: 사실 저희는 두 개의 메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활동으로 우리 학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음식 보존 문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는 탄소 중립 배출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교육 활동 외에 공동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명은 '가까워지는 너와 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주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MH: 교감 선생님은 나무껍질에 대해 가르쳤고, 또한 우리 수업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15번째] 목표인 'life on land'를요. 그 수업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사실 전문가들과 몇 개의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어요

KE: 저희가 전통의상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 파트너 학교도 수업 시간에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말레이시아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옷긴 것은 저희 둘 다 옷 입을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냥 사진만 보고 이렇게 입겠지 하고 입었는데,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잘못된 방식으로 옷을 묶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복은 묶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엄청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매우 좋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특히 문화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냥 사진만 보고 이렇게 묶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PE: 사실 가이드북(활동 지침)은 이미 매우 포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고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세션을 포함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무엇을 가르칠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필리핀 선생님들이나 필리핀 코디네이터와, 한국 코디네이터도 포함해서, 어떤 주제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육과정에 어떤 주제를 담아도 되는지 컨설팅 활동이나 컨설팅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학습 세션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가이드, 수업지도안처럼 수업자료도 포함하는 거죠. 저희가 샘플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꾸는 거죠. 선생님들이 샘플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필리핀에서 온라인 교환 수업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 했던 네 명의 선생님들은 정말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가 무엇이 있죠?

PH: 제 생각에는 가이드라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어떤 문제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좀 더 준비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준비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교사들의 경우 소속 교육청에서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에 대한 공문을 아태교육원으로부터 받아 이를 권유하고 입장이고, 참가교사 또한 공식적인 선발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행정적·기술

적 지원을 얻기는 어렵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지역 내의 학교들이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KE: 사실 학교는, 심지어 교육부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전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지역에서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 저희가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고 저희 학교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점을 알았을 때 매우 좋아해주었습니다.

CH: 우리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저를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에 등록되기 전에, 저는 학교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어요. 그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었어요.

TH: 제가 하는 일이 교육부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들이 와서 저를 칭찬해주고 행정팀에서는 아, 선생님, 일을 훌륭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학교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놀란 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 하나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합니다.

PH: 필리핀에서 교육부의 국제협력처인 ICO는 항상 GCED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교사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활동할 교사를 선발한 것도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에게 참여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하고 싶다고 하면 학교를 확인합니다. 학교 환경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장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선발 과정인 것 같습니다. GCE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을 선발하고, 학교를 검토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발하고, 저희는 ICO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원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저희에게 통보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를 고려합니다.

다. 참여교사와의 관계

해외교사들은 한국의 파트너 교사와의 관계가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네 가지 차원에서 참여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첫째, 소통의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는데, 영어 교사의 경우 큰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교과 담당 교사의 경우 회의나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경우는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한국 교사와 상의가 필요했을 때 며칠씩 지나야 회신이 와서 수업 준비가 지체된 적도 있었다.

MH: 한국 교사들과 의사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측 입장에서 그들에게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돌아해보면, 인터넷 장벽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먼 거리로 인해 선생님에게 정말 달기가 어려워요. 서로 개인적인 연락도 없구요.

KE: 수업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수업에서는 누가 담당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통 부족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학교 일로 서로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업 계획이 바뀌었지만 서로에게 알리는 것을 깜박한 거죠.

CH: 한국 교사들을 만난 건 완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소 유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눴고 뭘 하든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식으로 논의했어요.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계획을 짜고 팀원들과 다시 의논했어요.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한국인 교사 한 분만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와 한국인 담당 교사가 직접 소통했어요. 다른 3명의 교사들은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실제로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해가 생긴 경우 바로 회의 시간을 잡고 서로 타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매우 만족스러웠죠.

PE: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해] 이메일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가끔은 바로 답장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필요한 물건이나 정보가 있거나 다른 선생님이나 관리자와 얘기해야 할 때 저희는 바로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둘째, 시간 개념과 문화차이에 따른 수업진행 방식의 조율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다. 예컨대 한국에서의 수업시간이 45분인데 말레이시아에서의 시간이 60분인 경우 수업진행시간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교과중심 또는 과외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도 많은 논의가 필요했다.

KE: 저는 양측이 서로의 일정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수업 시간표는 두 나라 모두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교시도 다르죠. 말레이시아는 1교시는 1시간인데 한국은 초등학교가 40분에서 45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전에, 제 말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적어도 서로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 수업의 흐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소개와 활동, 그리고 마무리같은 것들이요. 양측이 각 나라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H: 한국의 학교는 특정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같이 협력했던 고등학교에서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3교시에서 4교시에만 가능했어요. 한국의 입장에 맞춰야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 프로그램에 맞춰 일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셋째,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어 다시 시작하거나 주어진 시간 내에 수업을 다 마치지 못했을 경우 대처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려웠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사들과 협업을 통해 우애를 키우고 동질적 전문성에 기초한 교사로서의 연대의식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

TH: 사실 저희는 좋은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과 협업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정말 관계에 있어 강한 유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야 해서요. 저희는 회의를 많이 하고 최종 결정을 같이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합니다. 우리의 결정도 아니고, 당신의 결정도 아니고, 같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이메일로 소통하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카카오톡이고...

넷째, 온라인으로 만나서 협동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의 관계는 오프라인 교류와 달리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종종 문화차이 때문에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온라인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러한 점에 대해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자주 연락하거나 서로에게 학습교재, 자국 물품 등을 보내며 우애를 다졌다.

ME: 저희는 줌으로 두 번 정도 밖에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업 등에 대해 상의할 때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자하고 이런 거 외에는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알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최고의 팀워크를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물론 몇 가지, 알다시피, 솔직히 저희가 의사소통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PH: 아마도 선생님이 매우 열정적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토론할 때 [한국 교사가] 말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아무래도 선생님은 저희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점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리핀에는 누군가가 가르칠 때 함부로 방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냥 토론에 참여할 뿐이지요. 만약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저희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중간에 개입하면 그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선생님이 그 개입으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E: 한국 선생님이랑 저희는 어떤 주제를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 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주제 관련 준비해야 할 자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미리 보내서 다음날 저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혹시나 수업 중간에 혼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필리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국에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의 활동 세션 동안, 체험 활동 시간 동안, 모든 자료가 미리 준비 됐습니다. 주제, 자료, 링크, 시간, 그리고 수업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누가 링크를 만들것인가? 누가 장소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학습 세션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양쪽에서 인터넷 연결이 양호한지 확인했습니다.

PE: 비록 저희가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필리핀과 한국 사이로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필리핀으로 물품을 보내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저희는 한국 아이들과 한국 선생님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라. 학생들의 반응

다수의 해외 학생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또래의 한국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즐겁고 의미있게 생각했다. 일부 학생들은 TV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화려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대비되는 한국 학교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학생신분으로서 겪는 공동경험에 대해 동류의식을 갖기도 했다. ME의 경우 시골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평소 정글안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다가 온라인 교육교류를 통해 그 학생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경청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학습부진이라는 낙

인을 부여한 데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수행후 평가에서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급별 매칭이 안된 경우 학생 간 소통이나 다루는 주제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E: 아이들은 굉장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의 경우, 사실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음식이랑 게임, 왜냐면 음식은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파트너 학교에서 음식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국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서 온 스스로 진짜 떡볶이를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떡볶이를 만들었고, 이게 처음이라 수업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통 게임도 정말 즐겁게 했는데, 제기차기를 좋아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 식재료를 한국으로 보내줬고, 게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네, 저희는 똑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냥 두 나라 간 내용만 바뀌었을 뿐.

PE: 사실 필리핀 학급들은 한국 수업이 있을 때마다 정말 신나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을 정말 경험하고 싶어했거든요. 학생들이 한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가고 싶어할 겁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학생들은 수업자료 중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내줬던 것들을 아직도 사용하고 조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퍼즐도 있었고 어떤 것은 전통 놀이와 같은 것이나 종이인형이나 핸드북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K 드라마로 필리핀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 배울 때 정말 신나서 더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물어본다면, 3개의 세션은 학생들이 배우고 배움을 극대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세션을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은 정말로 신나했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세션을 3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필리핀 언어 학습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필리핀 문화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통합하거나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개의 부분이 있고, 모든 학습 세션마다 그들이 그날 배운 SDG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칠 때마다, 세션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신나하고 왁자지껄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의도된 결과물이나 공예품을 생각해내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PH: 제 학생들이 제가 모둠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신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이나 비디오 등을 준비했

습니다. 저는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한 거냐라고 묻자 학생들이 자신들은 단지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과 있을 때 편했으면 좋겠고, 정말 필리핀 문화를 잘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모둠 토론 시간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도록 추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학생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좀 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도 드러났죠. 필리핀에서 비록 한국 대중음악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지만 비빔밥같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선생님이 비빔밥을 만드는 영상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비빔밥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실질적인 적용을 해본거죠. 그리고 실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정말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한 것 같습니다.

해외교사들은 종종 한국 학생들과 자국 학생들의 수업반응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다. 또 언어문제로 함께 수업하는데 해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다. 어떤 경우 해외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의 질문들에 대해 때로는 놀라거나 의아해하기도 했다.

KE: 대답하는 것도 한국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아이들에게는, 한국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제발 대답을 해달라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한국 선생님들을 볼 때 많이 수줍어하고 한국 선생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이들은 외국인 선생님들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아이들은 그냥 이 상황을 즐기고, 저희를 봤을 때 외국인 선생님들을 만나서 더 신나 보였습니다.

PH: 학생들마다 영어구사 수준에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어떤 한국 학생들은 표현을 하고 싶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리핀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교류를 할 때 겪는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학생들에게 소회의실별로 모둠활동을 진행할 때 한국 학생들에게 따라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한국어로 '따라하세요', 아니면 '읽으세요', 잘할 때는 '잘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 파트너 학교와 교류할 때 학생들을 더 참여시키고 더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PH: 제 학생 중에선 한국 학생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많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성평등, 지속가능성, 특히 저희 수업의 핵심 목표인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측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제 학생들이 영상을 몇 개 찍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더 익숙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KE: (한국)아이들은 말레이시아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 그대로 구글에 검색해서 지도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와 태국 근처에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한국)아이들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들어봤지만 말레이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처럼 이 두 나라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명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웃으며) 관광명소를 묻더라고요.

마. 온라인 교류의 장단점

1) 온라인 교류의 장점

온라인 교류는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 소통하는 매력이 있어서 준비과정이 잘 된 경우 공동 교실을 운영하며 집중적으로 학습효과를 이루어내는데 유용했다. 특히 오프라인 교사교류에 비해 많은 참가자들을 수용할 수 있고 기존의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이 용이한 점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APTE 교사교류에 참가했던 교사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교류를 통해 동료교사들과 팀웍을 이루면서 주도적으로 수업참여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CH: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 단순히 다른 나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다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함으로써 더 혜택을 보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어요.

PE: 실제로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것 모두 결국에는 저희에게 즐겁고, 교육적이고,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선생님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온라인 교사교류에서는 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룹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교재 개발에 시간을 최대한으로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3개월 동안 다른 시간대에 다른 수업들을 조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온라인 교류의 장점으로 해외에서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교사들조차도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교류의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ME: 장점에 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팀으로 그룹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그룹으로 가르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몇몇 선생님들은 이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은 해외에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내지 않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TH: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5명입니다. 네 5명이요. 저는 젊은 새로운 세대 교사들을 주로 선발했는데, 저를 도와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적극적이고 국제적으로 일하고자 해서입니다.

CH: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들에도 확장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었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가 다른 학교들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해외교사들은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교육교류에 참가하다보니 팀원들 간에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교사로서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도 했다.

PH: 저희가 모두 전공이 다른데요, 필리핀 교사이지만 영어 교사도 있고, 과학 교사도 있고 사회 교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온라인 교류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각자의 교과 영역을 통합하여 팀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회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언어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었고, 과학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선생님은 사회 교과를 통해 과학 수업에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에게 훌륭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주제통합과 같은 교과융합적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2) 온라인 교류의 단점

해외교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인 장벽이다. 특히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인터넷 인프라가 우수한 다른 학교나 기관에 데리고 가서 원래 교실이 아닌 낯선 곳

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PE: 저희가 두번째 세션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Barangai 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류에 모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해외교사들은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로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는 동료교사들이 한국 교육시스템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온라인 교류는 참가자들 간의 우애를 다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교육교류가 단발성 이벤트처럼 학생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PE: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고, 교실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고 온라인에서 할 때는 zoom을 통해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학교의 한국 선생님 중 한 분에게 교육을 받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왜'와 '어떻게'를 가르쳐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 한국 음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추운지도 느낄 수 없죠. 다른 선생님들과 물리적으로 교류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랑 외출을 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ME: 저는 한국에서 가르친 적이 있지만, 같이 참여했던 저희 학교의 다른 세명의 선생님들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교육문화와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교류국 학생들에게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반응을 충분히 유도하거나 피드백을 주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양국의 교사들 간의 사전 조율과 소통이 절실하게 된다.

ME: 단점은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스트 학교의 선생님들과도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같지 않죠. 아이들을 온라인으로만 가르쳐서 저희 수업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완전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우리 수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알 수 있잖아요.

TH: 아마도 학생들의 특징 같은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국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조용해요. 보통 동양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부끄럼이 많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좀 여러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바꾸니까 학생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더 참여를 많이 하고 그랬죠.

PE: 제가 관찰한 점은, 한국의 수업 시간에는, 교육시스템이 달라서 저희와 수업을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관찰한 점은 한국의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의도한 것을 바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핸드북에 대해 가르친다면, 바로 핸드북을 가르치는 거죠. 준비 활동이 없고, 수업 끝에는 마무리 활동이 없습니다. 가르친 후에는 그거로 끝이기 때문이죠. 필리핀에서는 준비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는 실제 수업 과정과 평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마무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PH: 제 생각에는 APCEIU는 한국 선생님들에게도 동남아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어떤 교육과정에 의해서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물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안내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어렵거나 순차통역의 특성상 지체될 때 이러한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가학생들과 교류국 파트너 교사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요구되기도 했다.

KE: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평상시랑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 그대로 교실 앞에서 서 있는 것과 스크린을 통해 보는 것은, 어떤 아이들은 집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집중하자, 앞을 보자, 스크린을 보자, 선생님 무어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도 집중해서 들어라, 나중에 다시 설명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좀 더 수업 통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PH: 저희가 가진 유일한 일상적 장벽은 언어장벽입니다. 제 생각에 유일한 부정적인 영향은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어느 정도의 좌절감을 경험한 점입니다. 학생들은 그냥 슬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전달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아니면 한

국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이러한 경험들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E: 선생님들에게 교류할 학생들에 대한 배경정보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어떤지, 학생들과 소통할 때에는 어떤것을 해도 되고 안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환을 하는 동안 제가 유일하게 저희 네 명의 선생님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들은 하면 안되는지, 한국 학생들과 어떻게 교류할 건지, 한국 선생님들과는 어떻게 소통할건지. 그거 한 가지가 온라인으로 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간 필리핀과 한국 선생님들 모두에게 해줄 수 있는 현지 적응 준비 같은 거죠.

제4장.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오늘날 세계화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인적·물적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지만 지구촌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서로에 관해 많이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편견의 벽 안에 갇혀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이 국가주의 프레임에 따른 지침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역할에 치중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역할 부여가 필요한데, 학습자들의 경험을 나라 밖 세상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 그것이다. 국제교육교류는 이러한 지향점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현하는 길을 보여준다. 여러 면에서 통합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오늘의 글로벌 현실을 교육자들이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교육협력을 위해 다년간 공을 들여온 데 비해 실제 활동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 아쉬움은 주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불충분,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능의 부족, 국제교육협력 프로젝트 간의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산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교육협력 활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APTE 교사교류사업과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은 과거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교육현장을 통한 국제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참가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한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교사들 중 상당수는 국내·외,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순기능을 언급하며 어떤 형태로든 교류가 지속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는 무엇보다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이 각기 다른 나라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상호이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온라인 교육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 간의 우정과 전문적인 유대감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의 근간이 되었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참가를 기회로 교직의 보람과 열정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했다. 국내·외 참가교사 모두에게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은 참가국 기존의 교육 관행을 돌아보게 하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및 기술 획득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제고했다. 특히 교류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게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류국에서의 교육과정 수행이나 학교에서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이 기폭제가

되어 문화, 경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아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나 개선가능한 부분들이 많음을 토로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교육의 장에서 만나 교육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마음은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하는 교사 본연의 자세와도 연결되어 교육자로서 새로운 시도들을 주저하지 않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 앞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교류에서 얻게되는 많은 구체적인 경험과 영향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 교사들은 그들이 새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로컬 교사들과 공유하고 확장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를 '선도 효과(pioneer effect)' 또는 '직관자 효과(eyewitness effect)'(Rapoport, 2008)라고 한다. 즉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의 선구자가 되거나 이를 널리 알리려 하는 것이다. 과학적 발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도효과'는 국제 프로그램 참가교사들이 프로그램 결과를 홍보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실천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많은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교류를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학교의 교사 중심 또는 교과서 중심의 접근법과 대조적으로 학생들을 성찰적이고 탐구 지향적이며 의사 결정적인 활동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적용하기를 원했다.

반면에 온라인 교육교류에 대한 기대에 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인식 부족, 교류국의 교육환경 및 학교 시스템에 대한 무지,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수 없는 상황, 문화차이에 대한 배려부족 또는 소통과정에서의 언어적 혼란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국에서 관행적으로 가르쳐온 지식의 수동적 소비에서 능동적인 참여 학습으로의 전환은 참가교사 모두에게 상당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방식에 적응하도록 하는 1차시 수업에서는 가장 혼란과 실수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교육자들 간의 국제적 교류가 여러 순기능과 더불어 장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접촉은 다양한 수준의 교육에서 파생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고, 다른 국가의 교사들 간의 협력과 상호이해 노력을 강화하며, 서로에 대한 무지로 인해 형성된 고정관념과 편견의 장벽을 제거한다. 프로그램 참가 해외교사들의 경우 개개인의 전문성이나 담당 교과와 상관없이 한국 교육문화에 대한 노출과 한국의 교육현장에 대한 관찰은 교육학적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거의 모든 국내·외 교사들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두려움,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비록 외국의 교사·학생과의 만남이 해당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인상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교류의 한계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를 회의적으로 만드는 몇 가지 사례도 드물게 언급되었지만, 압도적인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이 교육실천에서 다양한 관점과 확장된

사고를 해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우리 세계의 불가분성과 상호 연결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교사들 자신의 수업 관행을 되돌아보고 SDGs 목표중 하나인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2 정책제언

APTE가 진행되어온 여러 해에 걸쳐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끊임없이 개선·보완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온라인·오프라인 국제교류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당장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상정했다.

가. 더욱 세심한 사전 준비와 모니터링

온라인으로 3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의 준비작업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양국의 참가교사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수업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그런데 여건상 한두 번의 Zoom미팅과 몇 번의 이메일 교환만으로 준비하다 보니 수업때 즉흥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예컨대 각 차시별 수업주제를 정한다거나 내용구성을 할 때 서로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을 경우 난감한 경험을 했다는 참가교사들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 흥미 위주의 문화 소개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적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는, 가령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같은 특정 주제를 3차시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루어 각 차시별 수업이 연결되도록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 준비기간을 최대한 주고 아태교육원에서 준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수업 이전의 준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교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통·번역기 등을 참여 교사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나라별, 학급별로 파트너 교사들과 공동 교재개발도 고려하여 사전 준비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나. 교류국 교사와의 매칭 문제 개선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은 학교급별, 학년별,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매칭되게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희망하면, 일상적으로 교류 프로젝트를 시도하기를 원했다. 이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누구와’ 매칭되는 문제, 즉 적절한 교류 상대를 찾는 것이다. 참가교사와 학교를 해당국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 매년 추천받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국제교류 관련 연수를 이수한 참가교사 풀(pool)을 미리 구축해 놓고 조금 더 자유롭게 간편한 방식의 매칭 시스템 혹은 어플처럼 자유롭게 손쉬운 교류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더 많은 교사가 자유롭게 교류 교류국을 찾고 교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아시아 지역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서 구축한 세계시민교육 교사교류 네트워크(Asia-Pacific Region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etwork)와 같이 기존의 온라인 국제교사교류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한 확장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 맞춤형 APTE 안내와 참고자료 제공

연구결과에 따르면 APTE 온라인 교류에 처음 참여하는 교사들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주제를 결정하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다. 이러한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교류를 위한 안내 책자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파견교사에 대한 안내 지침이 존재하지만, 교류국에 대한 맞춤형 안내 책자를 개발하여 교류국의 학교 문화, 현지 상황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교류 수업 사례, 다양한 온라인 수업 교류 방식 등을 정리하여 온라인 교육교류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의미 있는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APTE 참가 교사들이 이와 같은 맞춤형 안내 책자 제작에 참여한다면 생동감 있는 다양한 수업 사례와 함께 더욱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2023년도 참여 교사들에게 2021~2022년도의 다양한 수업 사례를 제시하면, 교사들이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만의 효과적인 수업플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APTE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참여 교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여 더 원활하고 완성도 높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교류방식의 다각화 고려

온라인 교육교류는 오프라인 교육교류의 대안이나 보조하는 방식이 아닌, 그 자체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차별성과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의거하여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당장에는 온·오프라인 교류를 병행하되,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교류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교류와 오프라인 교류가 가진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교류방식의 다각화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예컨대, 교류국의 학기를 고려해 온라인 교류 실시 후 1개월만 오프라인 교류를 진행한다거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류방식을 적용하는 등 교사와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교류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 교류의 방향이라고 본다. 유연한 적용을 가정한다면 온라인 교류와 오프라인 교류의 혼합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첫째, 교사 2인이 한 팀을 이루어, 1명은 한국에서 온라인 교류를 진행하고, 1명은 교류국에 파견되어 오프라인 교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파견교사는 교류국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온라인 교류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순차적으로 온라인 교류를 진행한 후 오프라인 교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사들은 온라인 교류의 장점으로 학생과 학생들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학기 중 온라인 교류에서는 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한국 학생들과 교류국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 후, 교사가 온라인 교류를 했던 교류국의 학교로 파견되어 오프라인 교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 교사교류에서 학생교류로의 전환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변화와 성장이다.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교류보다는 학생교류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참여자의 의견이 있었다. APTE는 프로젝트 수업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지도할 것인지를 조율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몰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신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교류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학생교류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는 교사교류가 중심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교류에 방점을 둔 형태로 전환한다면 더욱 뜻깊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더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학생들에 국한되는 국제교육 교류를 넘어 교육현장에서 국제업무에 경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과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 교류 내용과 형식에서의 다원화를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바. 학교 내 연구회에서 학교 간 연구회로 확장 필요

우리나라의 교사들에게 연구회는 교육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점이다. 그런데 공립 학교는 4, 5년마다 근무학교를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교 내 연구회로 국제교류팀을 구성하였을 때 누군가 학교를 이동하면 연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교사는 교류를 지속하고 싶어도 이동한 학교에서 연구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더는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학교 내 연구회로 한정된 조직 형태를 학교 간 연구회, 혹은 인원의 제한이 없는 연구회 형태로 연구회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사. 참가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력 활용

참가자들의 선구자 효과(pioneer effect)가 발휘되어 온라인 교육교류의 긍정적인 면이 파급력이 있도록 참가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보상은 물질적이거나 승진과 같은 것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부여와 신뢰를 포함한다. 예컨대 자문단의 일원으로, 또는 모범운영사례의 주체로 국제교육교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인력풀로 준용될 필요가 있다.

아. 고등학교 교과와 융합되는 APTE

고등학교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APTE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고교 교사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참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자율과정, 고교학점제 등과의 관련 속에서 경험되고 이해되었다. 학교자율과정의 교과융합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에 APTE가 융화되면서 교사들의 APTE 참여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동시에 학교자율과정과 APTE의 경계 또한 사라졌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APTE 참여 경험의 의미를 물어보는 연구자의 질문에 교사들은 교과융합활동,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앞으로 온라인 교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학교자율과정과 고교학점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수업에 APTE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이는 APTE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육경험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교과가 융합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APTE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APTE의 수업은 단발성 수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고등학교에서 APTE 참가를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APTE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덕주(2020). 제2장 언택트 사회에서 다시 짚어 보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역할-새로운 학교교육의 방향을 찾아서. 김용, 곽덕주초등교사 김민성, 이승은 (편),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 (pp. 81-140). 지식의 날개.
- 교육부(2011). 2011년도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발 공고.
- 교육부(2012). 2012년도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발 공고.
- 교육부(2012). 한국 예비교사 중국 파견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
- 교육부(2017). 2017년 파견예정 프랑스로한국교육원 파견교사 선발 계획.
- 교육부(2022).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 계획.
- 국립국제교육원(2016). 2016년도「교원 해외 파견 사업」장기 파견자 선발 공고.
- 김이경(2019). 교사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김주영, 최민영, 송여진, 이지민, 배현주(2020). 세계시민의식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의미 고찰: 근거 이론을 활용한 국내 기참가 파견교사들의 후속활동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5(3), 91-139.
- 김한솔(2018). 해외 파견 교사들의 교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훈(2018)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설계모형 탐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 1-9.
- 박순용, 김중훈, 김상혁, 고석영(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여교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순용, 김중훈, 김상혁, 고석영(202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여 파견교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며. **국제이해교육연구**, 17(2), 41-75.
- 박주형, 김민규(2018).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성과 연구: 파견교사의 글로벌 역량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38(3), 25-46.
- 박주형, 김왕준, 장은정(2015).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주형, 문찬주(2020). 2020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분석 연구: 2017-2019 사업 기참가 교원 글로벌 역량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주형, 문찬주(2021).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분석: 글로벌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주형(2016). 교사역량강화 향상도 지표 구축 및 성과 관리 방안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박현정(2021).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측정도구 개발: 온라인 교류 사업 내용 반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서혜애, 권오남, 남정희, 이봉우(2011). 우수교원 해외진출 5개년계획 실행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교육부

- 신혜숙(2022). 제3장 심층면담. 권효숙, 배은주, 신혜숙, 전가일, 전은희, 전현욱 (공저), **질적연구 과정별 접근**, (127-177). 학지사.
- 오상아, 한유경, 양영은(2017).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다문화 외국인 교사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4), 1-22.
- 윤호수(2018).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이 초등 영어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정(2019). **‘다문화가정 대상국가(필리핀) 교사교류 사업’ 참여 교사의 타문화 이해과정과 다문화 역량의 변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연, 구양미, 채민정, 박상훈(2014).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성과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1(4), 149-175.
- 최은혁(2021). 온라인 화상 국제교류 협동수업의 실천 사례에 관한 연구: 예비 일본어교원의 미래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80, 307-327.
- 한유경, 김이경, 박상완, 정제영(2014).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성과 분석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유경, 김이경, 박상완(2015).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 성과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2(1), 147-169.
- 한유경, 추지윤, 이은지, 홍미영(2021). 초·중등 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문화사회연구**, 14(2), 219-249.
- 한유경(2016). **2016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성과분석: 초청교사 배치학교 참가교사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측정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한유경(2021).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분석: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학교 학생 및 교사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측정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ACCU(2021). TREE of International Exchange, 國際交流 公益財団法人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 ACCU(2022). 令和 3年度 初等中等教職員 國際交流事業実施報告書, 公益財団法人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 Agustin, M. L. S., & Montebon, D. R. T. (2018). An assessment of project teacher exchange for ASEAN teachers (TEACH)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7(1), 1.
- Asia 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https://www.accu.or.jp/>
- Astratinei, C., & Sihmantepe, A. (2014). Team teaching—An Erasmus teacher mobility experience. *"Mircea Cel Batran" Naval Academy*, 17(1), 62-63.
- Biesta. G. J. (2013). *The Beautiful Risk of Education*. Routledge.
- Change.org. *Save the Canadian exchange program for educators*. <https://www.change.org/p/organizations-that-are-involved-in-education-save-the-canadian-exchange-program-for-educators>
- Chinnappan, M., McKenzie, B., & Fitzsimmons, P. (2013).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towards overseas professional experience: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practice. *Australian Journal*

- al of Teacher Education*, 38(12), 36-54.
- ETFO Voice. (2002). Exchange teaching: *A year you will never forget*. <https://etfovoice.ca/feature/exchange-teaching-year-you-will-never-forget>
- European Commission. *Erasmus+*. <https://erasmus-plus.ec.europa.eu/opportunities/opportunities-for-individuals/staff-teaching/higher-education-teaching-staff>
- Fulbright Teacher Exchanges. *Programs*. <https://www.fulbrightteacherexchanges.org/programs/#intl>
- GoAbroad.com. (2020). *Teacher exchange programs: What they are & How you can do one*. <http://www.goabroad.com/articles/teach-abroad/teacher-exchange-programs>
- History Educationalist Conference of Japan. <https://www.rekkyo.org/>
- Marinela, R., Gabriel, M., & Ulla-Majja, S. (2013). Erasmus Intensive Programs – Learning Opportunities within the Interprofessional Context. *Gymnasium*, 14(2), 162-174.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https://www.mext.go.jp/a_menu/kokusai/kyouiku/1398624_00004.htm
- O'Dowd, R. (2020). A transnational model of virtual exchang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anguage Teaching*, 53(4), 477-490.
- Ontario Association of School Districts International. *Teaching and learning abroad for Ontario educators*. <https://www.oasdi.ca/learn-abroad/ontario-educators/>
- Rapoport, A. (2008). The impact of international programs on pedagogical practices of their participants: a Russian experience.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4(3), 225-238.
- Ridley, H. S., Hidveghi, B., & Pitts, A. (1997). Civic education for democracy in Hunga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ducation*, 12(2), 62-72.
- Schank, R.C., Berman, T.R. & A.M. Kimberli. (1999). Learning by Doing. In C. M. Reigeluth (Ed.),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 New Paradigm of Instructional Theory Volume 2*,(pp. 161-182). Routledge.
- Yücel, M. S. (2013). Language and cultural experiences of German language pre-service teachers within ERASMUS programme. *Egitim Bilimleri Fakültesi Dergisi*, 46(1), 23-47.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 가. 개별 면담 질문지
- 나. 초점집단면담(FGI) 질문지

[부록 2] 연구 관련 문건

- 가.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국문)
- 나.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영문)
- 다. 연구참여자 동의서
- 라. 연구참여자 설명문(국문)
- 마. 연구참여자 설명문(영문)

[부록 1] 면담 질문지

가. 개별 면담 질문지

구분	질문(안)
면담 안내	안내 및 질의응답
교육교류 참여 경험 전반	<p>자신이 참여했던 교육교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p> <p>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언제 참여하였는가?</p> <p>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p> <p>교육교류는 어느 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하였는가?</p> <p>교육교류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였는가?</p> <p>교육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활동을 하였는가?</p>
온라인 교류 경험	<p>온라인 교육교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였는가?</p> <p>온라인 교육교류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p> <p>온라인 교육교류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p> <p>온라인 교육교류 수업에서 기억나는 수업이나 에피소드가 있는가?</p> <p>온라인 교육교류 수업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p> <p>온라인 교육교류의 한계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p> <p>온라인 교육교류사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p> <p>온라인 교육교류만으로도 교육교류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p> <p>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를 혼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p> <p>온라인 교류와 오프라인 교류를 병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p> <p>효과적인 온라인 교류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p>
교육교류사업 효과	<p>교육교류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p> <p>교육교류사업은 교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p> <p>교육교류사업 참여 후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p> <p>교육교류사업 참여 후 교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p> <p>교육교류사업 참여 후 학생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p> <p>교육교류사업 참여 후 학생에게 어떤 성장 경험이 있었는가?</p> <p>세계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본인에게 어떤 성장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p> <p>세계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생에게 어떤 성장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p>

나. 초점집단면담(FGI) 질문지

구분	질문(안)
면담 안내	안내 및 질의응답
교사교류 경험 전반	자신이 참여했던 교사교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온라인 교류 경험	온라인 교류가 오프라인 교류와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를 혼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시민성과의 관련성	이 교류 프로그램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본인에게 어떤 성장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교사)가 이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세계시민성(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마무리

[부록 2] 연구 관련 문건

가.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국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아태교육원이 추진한 온라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국내 외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 교사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수집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외 교사들을 연구참여자로서 아래와 같이 초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구 참여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지연(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010-XXXX-7487)

1. 연구 제목: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이 교류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 따라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 2) 교사의 경험은 어떻게 학생 교육으로 이어졌는가?
 - 3) 교류방식에 따른 사업의 효과, 의미, 개선점은 무엇인가?
3.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박순용 교수
4. 연구 참여 기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2021, 2022) 참여 경험이 있는 국내교사와 해외교사
5. 연구참여자 수: 국내초등교사 6명, 국내중등교사 6명, 해외초중등교사 8명
6.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기금가자를 연구참여자로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보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연구방법: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교육교류사업 참여 경험(생각, 감정, 변화, 영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별면담이 1회 60분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면담 일정은 귀하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고, 개별 면담 후 추가질문을 1회 이 메일을 통해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 방법: 연구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 혹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9. 문의처(이름, 연락처):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지연(연구담당자)

010-XXXX-7487, marchkij@gmail.com

나.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영문)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Program: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Post-Covid-19 International Online Education Exchange

Participants Wanted

This study collects the experiences and thoughts of the participating teach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and foreig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online teacher exchange program promoted by APCEIU to examine the online education exchange program and look for areas in need of improvements.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invite domestic and foreign teachers with experiences i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s follows, so your participation is most welcome.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participating in the study,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the contact number below.

Please contact: Kim, Ji Youn (Yonsei University, 82-10-XXXX-7487)

1. Title of research: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Program: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Post-Covid19 International Online Education Exchange
2. Objective of research:
 - 1) What kind of experiences did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program have according to the exchange method, that is, online and offline situations?
 - 2) How did the teacher experiences extend to student learning experience?
 - 3) What are the effects, meanings, and improvements of the program according to online and offline exchange method?
2. Research Director: Dr. Soon-Yong Pak,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3. Condition for participation: Teacher with experiences in the Asia-Pacific online teacher exchange program (2021, 2022)
4. Number of participants: 6 domestic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6 domestic and 8 overseas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5. Compensation for participants: There is no material compensation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However, participants in the stud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individual experiences personally,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can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promoting international online education exchange in the post-COVID-19 era.
6. Research methods: Once the participant agrees to the interviews, he/she will be asked about the experiences during and after the teacher exchange program. The participant will be encouraged to talk about his/her thoughts, feelings, and transformation as they remember them.
7. Way to participate: Volunteers who wish to participate are asked to contact the person below for more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8. Contact point: Ms. Kim, Ji Youn (Yonsei University)
82-10-XXXX-7487, marchkjy@gmail.com

라. 연구참여자 설명문(국문)

연구참여자 설명문

(ver. 1.0)

연구과제명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성명/소속) :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02-2123-3182, paks@yonsei.ac.kr)
- 공동연구원 (성명/소속) : 차보은/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010-XXXX-7749, boeuncha@yonsei.ac.kr)
- 공동연구원 (성명/소속) : 김지연/연세대학교 교육학과
 (010-XXXX-7487, marchkij@gmail.com)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교류사업의 재구조화와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설명문에서는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귀하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박순용 연구책임자, 차보은 연구원 혹은 김지연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하 아태교육원)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아태지역에 교사 파견형식으로 교육교류사업인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교류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교류 방식으로 전환하여 아태지역 현직 교사들과 국내 교사들 간 비대면 형식의 교육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이 교류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 따라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교사의 경험이 어떻게 학생 교육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류방식에 따른 사업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국제교육교류 실현을 위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류 병행 방안 검토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연구는 아태교육원이 추진한 온-오프라인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국내외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 교사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수집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온라인 교육교류사업(2021, 2022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국내초등교사 6명, 국내중등교사 6명, 해외초중등교사 8명이 각각 일대일 개별 면담에 참여할 것입니다.

3. 연구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자와 개별면담을 통해 참여했던 교육교류사업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전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는 당시 느꼈던 생각, 감정, 그리고 변화 등을 기억나는 대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교육 참여가 이후 학교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 영향을 준 바가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야기는 녹음될 것이며, 개별면담은 60분 간 1회,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면담 일자는 귀하께서 본 설명문을 보시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연구자와 협의하여 귀하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1회의 개별면담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또한 전체 연구가 진행되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1회 이하의 추가 질문을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본 연구과정에서 특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귀하는 아태교육원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으며, 금전적인 보상이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귀하의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그간의 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상해에 대한 보상

본 연구 참여에 따른 상해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0.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상해 등에 대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속, 교사경험 연수, 참가했던 교류 대상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드러내고 익명처리하여 연구참여자의 정보를 보호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게 되는 자료는 '면담 녹음파일, 면담 전자자료, 연구자의 관찰기록,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글이나 사진 등 개인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될 것이며, 자료는 모두 암호화하여 연구자의 개인 외장 디스크에 저장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목적 외 타 용도로는 결코 사용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치 않는 내용은 논문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수집되었던 모든 자료는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이외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연구자의 개인 외장 디스크에 암호화하여 보관될 것이며, 연구가 종료된 후 3년간 보관된 후 폐기할 것입니다.

11.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본 연구 참여 설명을 해준 연구원에게 본 설명문 첫 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윤리적, 과학적으로 승인된 연구입니다.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02-2123-5143

마. 연구참여자 설명문(영문)

Explanatory Note for Research Participants

(ver. 1.0)

Title of research :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Program: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Post-Covid-19 International Online Education Exchange

Research Director : Pak, Soon-Yong / Professor, Yonsei Univ. Dept. of Education (82-2-2123-3182, paks@yonsei.ac.kr)

Co-Researcher : Cha, Bo Eun / Researcher, Yonsei Univ. Educaion Research Institute (82-10-XXXX-7749, boeuncha@yonsei.ac.kr)

Co-Researcher : Kim, Ji Youn / Ph.D. Student, Yonsei Univ. Dept. of Education (82-10-XXXX-7487, marchkij@gmail.com)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formance and results of international online education exchange program hosted by UNESCO-APCEIU and to recommend suggestions for future education exchange projects. Before deciding whether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we ask you to kindly read the instructions and consent forms carefully. This explanatory note explains why this study is conducted and what will be included in the process. It also explains that you may stop participating in this study at any time.

During the interview, the researcher will explain in detail about the research.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ly up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teacher is confirmed. Plea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and express you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f necessary you are welcome to consult with your colleagues or family members.

If you have any question, one of the researchers will provide answers for you.

Your signature means that you have heard the description of this study and its risks, and your signature on this document confirms that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1. The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The UNESCO Asia-Pacific Center for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has been conducting an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in the form of dispatching teachers to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2012. However, since 2020, it has been difficult to dispatch Korean teachers to other countries or invite overseas teachers to visit Korea due to COVID-19. In order to continue educational exchanges at local schools, we have switched to an online education exchange method and conducted exchanges between Korean teachers and teach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and timely to examine in detail how teachers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exchange project, what kind of experiences they had in online and offline situations, and to derive the effectiveness, meaning, and improvement possibilities of the project through the new exchange metho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review how concurrent online and offline exchanges can supplement each other's strengths and weaknesses to realize post-COVID-19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qualitative data on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the participating teach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and foreig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exchange program sponsored by APCEIU. The study hopes to examine and seek improvements to the program in the post-COVID-19 era.

2. Research participants

In this study, six domestic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six domestic and eight overseas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online education exchange programs (2021, 2022) will participate in one-on-on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3. Research method

If you express your intention to participate, the following process will proceed. You will talk about your experiences in the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researchers. When you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s in the program, you can talk about your thoughts, feelings, and transformation as you remember them. If you think your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exchange program has affected your school classes or school activities since then, you are welcome to talk about how.

Your story will be recorded, and individual interviews will be held once for about 60 minutes, online via Zoom. The date of the interview will be set at the convenience of your schedule after consulting with the researcher once you have expressed you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study.

4. Length of research

You will be asked to participate in at least one individual interview for this study. You may also be asked additional questions in writing via email until November 30, 2022, when the study concludes.

5. Withdrawal from participation

You can withdraw from the research anytime after participating in the study. If you wish to stop participating in the study, please contact your researcher or research director immediately.

6. Risks and unanticipated consequences

We do not expect any risks or unanticipated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participants during the course of the resea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possible harm or risks during your participation to the research, please inquire immediately to one of the researchers.

7.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There is no material compensation for you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You have received various support in the course of your participation in the APCEIU program, and financial compensation may hinder your willingnes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rogram, so we do not provide additional benefits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study. However, by participating in the study,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your experience personally, and the information you provide can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promoting international online education exchange in the post-COVID-19 era.

8. Penalty for non-participation or withdrawal

You are free to withdraw at any time from this study for any reason. There is also no penalty if you choose not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9. Compensation for harm

There is little chance of harm for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10. Personal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In the course of this study,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study participants will be at risk of injury or be harmed. In this study, it is not important to collect information on individual personal information, but nevertheless, we will collect information on current affiliation, teacher experience training, participating countries, etc. and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revealing and anonymizing the minimum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tud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tudy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personal data such as interview recording files, interview transcription data, researcher's observation records, and writings or photos provided by the study participants." This data will be used from the beginning of the study until November 30, 2022. The collected data will never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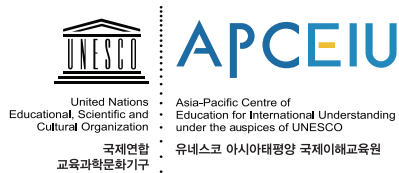
this study, and we promise that the contents that the study participants do not want to reveal will never be included in the final paper. In addition, if the study participant stops or withdraws from the study, all data collected will be destroyed immediately. In addition,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encrypted and stored on the researcher's personal external disk, and will be stored for three years after the study is completed after which they will be discarded.

11. Further questions about the resea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study or have problems during the study, please feel free to contact one of the researchers in the first page of this document who will have explained to you about this study. If there is a problem with your rights as a research participant, you can talk to the researcher or contact the following number. This study is ethically and scientifically approved by the Yonsei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Yonsei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82-2-2123-514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교육교류 추진방안 연구

발행	2022년 11월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차보은(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지연(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한승민(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문의처	국제교사교류실(ite@unescoapceiu.org)
제작대행	좋은사람디자인